

1999학년도
석사(Th.M)학위 청구논문

칼 바르트와 존 칼빈의 예정론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in the Doctrines of
Predestination of Karl Barth and John Calvin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김 병 환

칼 바르트와 존 칼빈의 예정론 비교연구

指 導 金 聖 奉 教 授

이 論文을 碩士(Th.M)學位請求論文으로 提出함


1999년 12월 일

安 養 大 學 校 神 學 大 學 院

神 學 科 組 織 神 學 傳 攻

金 秉 奐

金秉奭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심사위원장 박종근 印

심사위원 김성봉 印

심사위원 이은선 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년 12월 일

목 차

| | |
|--|-----|
| I. 서론 | 1 |
| A. 문제 제기 및 연구 방향 | 1 |
| B. 연구방법 및 범위 | 5 |
| II. 칼 바르트의 예정론 | 8 |
| A. 바르트의 신학에서의 예정론의 위치와 기초 | 8 |
| B. 예정론의 창시자 | 14 |
| 1. 삼위일체 하나님 / 14 | |
| 2. 보편적 선택 / 16 | |
| 3. 선택하는 주체로서의 그리스도 / 18 | |
| C. 예정론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 | 21 |
| 1. 예정의 인식론적 근거 / 21 | |
| 2.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 22 | |
| 3. 하나님의 행동에서 나타난 영원한 예정 / 23 | |
| D. 예정의 대상 | 25 |
| E. 이중 예정 | 50 |
| III. 존 칼빈의 예정론 | 54 |
| A. 칼빈의 신학에서의 예정론의 위치와 기초 | 54 |
| B. 예정론의 창시자 | 59 |
| 1. 하나님의 절대주권 / 59 | |
| 2. 제한적 선택 / 65 | |
| 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 67 | |
| C.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 | 70 |
| 1. 인간의 전적 타락 / 70 | |
| 2. 유효한 부르심 / 73 | |
| 3. 은총과 행위 / 75 | |
| D. 예정의 대상 | 76 |
| E. 이중 예정 | 80 |
| IV. 칼 바르트와 존 칼빈의 주요 논점에서의 예정론 비교 | 92 |
| A. 예정론의 인식론적 근거 | 92 |
| B. 선택의 주체와 객체 | 95 |
| C. 이중 예정 | 98 |
| D. 만인 구원론과 제한 구원론 | 100 |
| V. 결 론 | 106 |
| * 참고 자료(Bibliography) | 108 |

I. 서 론

A. 문제 제기 및 연구 방향

오늘날 예정 교리가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지 않고, 무시되어지며, 적극적으로 예정 교리를 부인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원인은 전통적인 예정 교리의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상 예정 교리의 바른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리가 주는 삶의 실천적인 의미를 망각하여, 우리 삶에서 예정 교리를 모순되게, 부정되게 만드는 우리 삶의 모습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오늘날 예정 교리의 대적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이 주체가 되어서 성경의 계시를 곡해하려는, 우리 자신임을 알게 된다.

예정론은 창세전에 일어난, 인간의 참여없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결정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인데, 이 결정대로 선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유기로 결정된 자는 결국 버림을 받는다는 교리이다.

예정 교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 많은 반대에 부딪쳐 왔다. 그러나 예정은 어거스틴 시대에 와서야 역사에서 주요한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예정을 언급하였으나 아직 그것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거스틴은, 예정이 결코 인간 행동들에 관한 하나님의 예지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적인 예지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반(半)펠라기우스와의 논쟁들, 중세 말엽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거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0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한결

같이 가장 엄격한 예정론을 주장했다. 심지어 멜랑크톤도 초기에는 그랬다.

칼빈은 어거스틴적인 이중 예정론을 확고하게 주장했다.¹⁾ 결국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신앙체제는 칼빈의 창작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교리인 것이다. 그것들을 칼빈이 성경에 근거해서 체계화한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영감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으로서 칼빈 신학의 유일한 근거이다. 특별히 칼빈은 예정 교리는 성경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는 성경에서 이 교리를 이끌어 냈으며, 또한 그것이 자기의 해석을 판단해 주는 표준이 되기를 원했다. 예정 교리의 기본 구조는 성경 특히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의존하고 있다. 칼빈의 최초의 주석은 로마서였다. 이에 대한 그의 연구는 「기독교 강요」의 예정 교리를 정교히 해 주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²⁾

칼빈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예정론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모두 무익하고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또한 예정론의 문제를 공식화하는 것을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만약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두려운 공포로 휩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도 전에 우리 자신의 이성의 덫에 걸려 무지의 늪을 헤메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교리에 접근하게 될 때 이 교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³⁾

1) 루이스 벌코프, 「벌코프의 조직신학(상)」, 권수경, 이상원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pp. 311-313.

2) F. H. 클로스터, 「칼빈의 예정론」, 신복윤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94), pp. 28-30.

3) John Calvin,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 T. McNeil. 2 vols. *The Libert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1-24.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이하 *Inst*로 표기) *Inst.*, III, 24, 4.

이에 반해 20세기의 최대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칼 바르트는 예정론을 복음의 총화라고 주장했다. 바르트에 의하면 예정론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이 전통적 예정론에서 잘못 가르쳐져서, 그 핵심이 상당 부분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1932년부터 1967년에 이르는 동안 바르트는 장장 9,000 페이지를 넘는 「교회 교의학」 4)전 13권을 출간하였다.5) 「교회 교의학」 전체를 볼 때 바르트 신학의 결정적인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적인데 있다.

바르트는 교의학 서설 초두에서 교의학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즉,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언어는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 신학의 규범이요, 척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14:6)인 까닭에 신학의 지배적인 관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의미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6)

바르트는 전통적인 예정론이 이미 규정된 운명만 강조되는 기계적 예정론으로 인간을 향한 회개에로의 진지한 부름을 해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나님의 예정을 고정된 어떤 체계로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절박성이 희생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정된 자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예정의

4)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I/2* (Edinburgh : T&T Clark, 1957), p.x. 이하 C.D.,로 표기.

5) 데이비드 L. 물러, 「칼 바르트의 신학 사상」, 이형기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6), p. 5.

6) Ibid., p. 54.

확실한 보증이라고 했다.

바르트의 신학에서는 기록 밖의 다른 다른 주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의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계시되었으며, 계시되지 않은 감추어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예수님은 선택하는 주체로서 하나님임과 동시에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선택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바르트는 하나님의 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직 육신으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며,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의 주장은 전통적 예정론에 비해 큰 차이가 있으며, 칼빈의 예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해석을 하였다. 종교 개혁자들처럼 그도 이 교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계시, 소명등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예정에서 사람들의 예정된 분리를 알지 못하였으며, 선택을 특별한 선택으로 칼빈과 다르게 이해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바르트와 전통적 예정론 사이에 이같은 차이를 만들었으며, 어느 예정론이 우리가 보수하고 가르쳐야 할 바른 예정론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정론은 인간의 구원과 기초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예정론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는 쪽에 그리고 성경은 예정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자 한다.

B. 연구방법 및 범위

예정 교리는 기본적으로 교회론적, 또는 신론적 교리와는 대조되는 구원론적인 교리이다. 우리가 신학적인 교리로서 예정론을 말할 때, 예정론적 견해가 만사와 만물은 미리 결정되었을 뿐아니라, 구원받은 자에 대한 예정을 다루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될 것이며, 이 교리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즉각적으로 도출된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칼빈의 예정 교리는 구원론적인 문제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쟁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만약에 구원론이 주된 문제라면 예정론은 구원론을 가장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된다.

칼빈은 반복해서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론을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예정론의 논증적 이슈들을 사용한다. 따라서 예정론과 그 기능을 칼빈의 신학적 틀 안에서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론이 반대자들과의 공방을 통해서 잘못된 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쟁적 방법을 그 구원론적인 초점에 첨가시켜야만 한다.⁷⁾

그리고 본 논문의 특징은, 순서에 의하면 당연히 칼빈의 예정론을 먼저 다루고, 그 후에 바르트의 선택론을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현대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에서 그것의 내용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따라가는 현실을 보고, 잘못된 그것들을 먼저 확실히 알게한 다음, 바른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르트의 예정론을 먼저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통적인 예정론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르트의 예정론

7) 강정진, 「칼빈의 예정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p. 13-15.

과 칼빈의 예정론을 서로가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서로 대조해 가면서 연구하고자 한다. 논쟁법상 공명정대를 기하기 위해서는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의 구성 요소를 은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철저히 두 신학자의 주장들을 그들의 텍스트에 충실하게 기술함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한 그들 편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한 비교를 같은 논제에 대해 서로가 무엇이 다른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같은 주제를 다루는 많은 다른 논문들과 서적들을 참고했으나, 대부분 두 신학자 서로의 주장만을 기술해 정리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그것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를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예정론에 있어 그 두 사람이 주장하는 논제 중 대표적인 주제인 예정의 창시자,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 예정의 대상, 이 중 예정들의 부분들을 대조하면서 비교 평가해 보기로 한다.

이 논문의 작성을 위해 다른 기존의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Church Dogmatics* II/2)와 칼빈의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가 주 교제가 되겠으며, 그 외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서적들이 참고될 것이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많은 석학들이 연구해 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것들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한다.

이 논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서론으로 문제제기와 연구방향 그리고 연구방법 및 범위를 밝힌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예정론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칼 바르트의 예정론을 그의 「교회 교의학」을 중심으로 자신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다. 먼저 칼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예정론의 위치와 그 사상적 기초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예정론의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본다. 특별히 예정론의 창시자와 예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 그리고 예정의 대상과 그가 주장하는 이중 예정에 대해서 알아 본다.

III장에서는, 존 칼빈의 예정론을 기독교 강요 III권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같은 방법으로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예정론의 위치와 사상적 기초를 알아본 다음, 예정론의 구조에서 동일하게 예정론의 창시자,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정의 대상과 이중 예정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와 관련된 성경의 구절들을 칼빈의 주석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두 사람의 주요 논점을 비교하면서 비평을 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예정론의 인식론적 근거, 선택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문제, 이중 예정, 그리고 만인 구원론과 제한 구원론에 대해 비교 비판하기로 한다.

V장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예정론을 유추해 내며, 신학을 반드시 성경의 토대에 바로 세우기 위해 그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결론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

예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신앙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정론을 바로 이해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수 많은 세월을 걸친 수고와 피의 결정체적인 노력을 통해 지켜져 왔던 이 예정 교리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II. 칼 바르트의 예정론

칼빈 이후 예정 교리는 17세기에 이르러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 의하여 더 체계화되고 이론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음 칼빈의 예정론이 성경적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한 점과는 달리 경화된 교리로 변화되게 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면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신학자가 바르트이다.

20세기 최대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칼 바르트는, 예정론은 사변이 아니라 복음의 총화라고 주장한다. 그의 의하면 예정론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이 전통적 예정론에서 잘못 가르쳐져서 그 핵심 부분이 상당히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정을 고정된 어떤 체제로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예정 교리의 해석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다.

A. 바르트의 신학에서의 예정론의 위치와 기초

1. 예정론의 위치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을 기술한 이후, 예정론은 교회를 대변하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예정론을 바르트는 그의 기독교론에 입각하여 새롭게 다루고 있으며, 이 예정론은 “그의 신학의 왕관”이라고 불릴 만큼 그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⁸⁾

바르트의 신학에 있어서 예정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려면 그의 「전(全)

8) 김균진, 「헤겔과 바르트」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p. 303.

교회 교의학」(Die Kirchliche Dogmatik)에서의 선택론의 위치를 살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구조를 보면, 먼저 C.D. I은 말씀론, C.D. II는 신론, C.D. III는 창조론, C.D. IV는 화해론을 다루고 있는데, 바르트는 선택론을 C.D. II/2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바르트의 신학 체계에 있어서는 신론과 분리된 예정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바르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론의 근거이다. 그에 있어 예정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의 신학에 있어서 예정론은 신론과 결코 분리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의 신학은 먼저 신론을 기술한 다음에, 예정론과 창조론을 기술한다. 이와 같은 교의학의 배열은, 예정과 창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가 있으며,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예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배열에 있어서 신론과 예정론은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왜냐하면 창조와 예정 이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예정의 행위와는 별개의 것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르트의 견해에 의하면, 예정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속한다. 하나님은 오직 예정하는 자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바르트의 신학 체계에 있어서 예정론은 신론과 분리될 수 없다.⁹⁾ 그는 예정론의 뿌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속한다고 말한다.

또한 바르트의 견해에 의하면, 예정론은 화해론의 핵심적 내용이다.¹⁰⁾

9) Ibid., pp. 303-304.

10) 우리가 바르트의 선택론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가 말한 “선택론의 정위”에 관한 처음 소개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것이다. “선택론은 복음의 총화(總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분으로서 인간을 위해 계신다는 것은, 예전에 없던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이 선택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선택되신 분이라고 하는 지식이다. 선택론은 신론에 속한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의 인간 선택은 인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정론의 기본 역할은 영원하시고, 자유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길과 행위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C.D., II/2. pp. 3-5)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선택을 결정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화해론의 중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해론이 기독교 신앙고백의 중심 내용이라면, 예정론은 기독교 신앙고백의 핵심 내용이고, 교의학 전체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정론은 화해론의 일부가 아니라 화해론의 중심이요,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에 관하여 말해야 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은혜로운 하나님에 의한 근본적인 증언”이며, 자기와 인간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자체에 대한 진술이다.

예정론의 기능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증언하는데 있다. 달리 말하면 예정론에 있어서 주요 문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행위에 대한 기독교의 인식을 전개하는 것이다.”¹¹⁾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예정론은 “복음의 종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사신(使信)의 총괄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모든 인간을 선택하심으로써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예정론의 내용은 바로 “복음”이며, 구원론 자체이다.¹²⁾

이 선택 교리는 바르트 신학의 정점을 이룬다. 즉 이 교리가 그의 모든 신학의 뿌리이다. 이것이 바르트의 기독교론적 집중의 기원이요, 그의 ‘만민 구원론’의 출처이다. 이 예정 교리야말로 모든 다른 것을 조명한다. 바르트는 이 선택 교리가 그의 신학의 공통 분모라고 한다.

바르트는 하나님에 대하여 세계, 창조, 구속, 섭리 및 화해, 교회,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예정 교리를 그 출발점과 모퉁이 돌로 삼는다.

11) C.D., I/2, p. 986.

12) 김균진, Ibid., p. 304.

2. 예정론의 기초

바르트의 예정론에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것은 “선택하는 하나님”과 “선택된 인간”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보아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이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근거이며, 목표인 것이다.

바르트가 제시하고 있는 예정론의 올바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 구체적인 사건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성경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근거해야 한다.¹³⁾

바르트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인식의 근원은 하나님의 계시에 있고,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인식의 근원도 하나님의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주장한다.¹⁴⁾ 그 이유는, 예정이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인간을 구원과 생명으로 선택하신 사건, 곧 은혜의 선택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선택된 인간”인 동시에 모든 “인간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으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정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지나 결단에 대해서는 묻어서는 안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의 의지와 결단, 곧 그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 묻어야 한다.¹⁵⁾

13) C.D., II/1, p. 63.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인식의 근원도 하나님의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바르트의 입장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14) C.D., II/2, p. 63.

바르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 행위'의 근거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며, 그 자신이 신적 행위이다.¹⁶⁾

바르트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은 접근할 수 없는 감추이신 하나님(*deus absconditus*)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deus revelatus*) 가운데 있는 충만한 은총을 가리킨다. 은총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시간 안에서 용납하여 주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그의 아들로 취급하여 주시는 아버지다운 자애로운 은혜를 말한다.

바르트는 예정론의 역사에서 전개하는 입장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의(義)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유를 상실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궁극적 선택을 승인할 때에만 가능하다. 바로 여기, 피조물이 은총에 반항하는 데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살고 있지 않는 데에서 인간의 곤경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피조물의 곤경의 깊이에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예정이 반영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랑에 대한 피조물의 대적이 그에게는 어떤 장애도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한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자유도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자유도 주장할 수 없다. 단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현실적인 자유를 갖는다. 현실적인 자유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에 의해 살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¹⁷⁾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 삶의

15) 이종성, 「신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p. 366 : "예정에 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신학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16) C.D., II/2, p. 100.

17) C.D., II/2, pp. 29-30.

중심점이다. 생명을 주는 신비, 즉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 그 자체는 피조물에게 있어서 은총과 친절과 은혜이다. 하나님의 신비는 모든 자아 결정에 선행하며, 무조건적인 긍정이요, 피조물이 언제나 그 아래에서만 살아야 하는 예정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종전의 예정론에서 볼 수 있는 '두려운 결정'(horribile decretum)의 불안의 영역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 밖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피조물의 영역이다. 그러나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으로 인하여 불안의 영역에서 해방되었다. 이러한 선택의 신비 그 자체가 피조물의 평온 상태를 말해 주는 것이다.¹⁸⁾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義)”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용으로 하며,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가치 보존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심판의 의는 용서와 은총과 선택과 축복을 제시한다. 이 질서에 따라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계시되는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대적하는 불합리를 극복한다. 하나님은 선택 안에서 피조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그 자신의 의를 적용시켜 판단하신다.¹⁹⁾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이성과 노력을 통한 역사의 발전과 사회적 변혁을 긍정하는 것에는 반대하였지만, 그리스도인의 역사 의식, 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은 취하여 자신의 신학적 실천의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²⁰⁾ 따라서 바르트의 신학 사상은 자유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두 흐름 안에서 생각해야만 한다.

18) C.D., II/2, pp. 31-33.

19) C.D., II/2, pp. 31-35.

20) William A. Scott, 「개신교 신학 사상사」, 김쾌상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p. 183.

B. 예정론의 창시자

1. 삼위일체 하나님

바르트의 견해에 의하면, 삼위일체의 내용은 교의학 체계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한 특별한 위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체 교의학에 대하여 결정적이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의 신론을 기독교적인 것으로서 기독교의 계시 개념을, 다른 모든 가능한 신론들과 계시 개념에 비하여 기독교적인 계시 개념으로서, 근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1)

“삼위일체론의 기초, 그 뿌리”는, 바르트에 있어서 한 마디로 계시에 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주(主)로서 계시한다. 이 명제가 “삼위일체론의 뿌리”이다. 바르트의 신학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 이유는, 계시의 사건은 하나의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시의 사건으로부터 삼위일체론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파괴될 수 없는 단일성 가운데서 동일한 분(*derselbe*)이시며, 동시에 파괴될 수 없는 상이성 가운데서 세 번 다르게 동일한 분이다. 혹은 교회의 삼위일체 교리의 표현에 의하면, 계시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있어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그들의 본질의 단일성 가운데서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계시에 대한 성

21) 김균진, 「헤겔과 바르트」, op. cit., p. 239.

경의 증언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은 그의 인격들의 상이성 가운데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다.” 이러한 삼위일체론은 “계시의 해석”이요, 계시는 “삼위일체론의 근거”이다.²²⁾

그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 역사’(Urgeschichte)이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의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소위 말하는 존재의 유비(analogia)를 거부하고, 신앙의 유비(analogia fidei)를 주장한다. 인간은 오직 신앙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바르트의 신학은 기독교론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기독교론이 그의 신학에 중요한 원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신학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바르트의 신학은 단지 기독교론만을 그의 뼈대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바르트의 기독교론은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따라서 삼위일체론이 그의 신학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offenbarer), 아들 하나님(offenbarung), 성령 하나님(offenbarsein)의 삼위일체적인 사건이다.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삼위일체적인 존재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결정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 있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르트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에 근거되어 있고,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기독교론은 삼위일체론에, 삼위일체론은 기독교론에 근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르트의 모든 신학적 사고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뼈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²³⁾

22) Ibid., pp. 241-242.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바르트는 기독교와 문화, 계시와 종교, 신학과 철학의 긍정적인 관계를 부인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기독교는 어떤 문화의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다. 오히려 기독교는, 어떤 문화를 포함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종말론적 빛아래 서게 하며, 그의 상대성을 인식하게 된다. 모든 종교는 “인격의 신격화요 하나님의 인간화”를 뜻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고자하는 인간의 교만의 표현이다.²⁴⁾

2. 보편적 선택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정된 자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보편적 선택을 주장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예정된 확실한 보증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각 개인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공동체의 선택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생각될 수 없다. 오히려 각 개인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선택과 엄격한 관련에서만 이야기 되어야 한다. 각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이며, 그것은 영원 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었다.”²⁵⁾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심판과 죽음을, 인간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 예정은 실천되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인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계시되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원

23) Ibid., p. 195.

24) Ibid.

25) Ibid., p. 337.

한 결의는 인간을 버리기 위한 결의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선택하시기 위한 결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려 안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라고 했다. 그는 영원 전에 일군의 무리를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신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계시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선택된 인간 예수에게는 고난과 죽음이 결정되었고, 그가 저주받은 자를 위하여 저주와 고난을 당함으로 인간들은 선택을 받는다.²⁶⁾ 따라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행위는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도 사랑을 행하는 자유이지 그 밖의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과 위배되는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 버림받은 분(Der einzige Verworfenene)' 이라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대신 인간을 선택하시고 인간을 찾으신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바르트의 선택론의 구조는 결국 인간의 불신앙, 죄등은 하나님의 은총의 우월성 앞에서 "존재론적 불가능성"이 된다. 영원 전부터 인간 모두는 저주 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된 자이다. 영원한 삼위일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결단 가운데서 선택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 가운데서 버림 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와 대립하여 개별화된 인간에게 합당한 버림을 그의

26) C.D., II/2, p. 124 : 그러므로 선택은 "자유로운 은혜"요, "하나님의 성실과 인내"이다.

태초의 뜻 가운데서. 자기가 감당하셨다. 이와같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그렇게 유일하게 버림받은 인간이 곧 자기 자신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유기는 이 아들에게 돌려졌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²⁷⁾

그러나 이것은 회개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시지만, 모든 인간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요, 약속이며 모든 인간에 대한 “가능성”이다. 선택과 구원은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인간이 이 가능성을 받아 드릴 때에만, 선택은 현실화되는 것이다.²⁸⁾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들은 현실적으로 선택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고정된 체계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구현화되는 사건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작정한 하나님의 선택은, 시간 속에서 만남을 통해 구현화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선택은 믿음의 사건인 것이다. 즉 선택은 믿음을 통해서 구현화된다는 것이다.

3. 선택하는 주체로서의 그리스도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그는 선택된 자일 뿐만 아니라 “선택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은 그의 삼위일체적 사고에서 유래한다.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모든 피조물과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었다.

27) C.D., II/2, p. 350 : 따라서 “실제로 유기된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유기된 대상이 되므로, 인간에 대한 전통적인 선택과 유기는 필요없게 된다.”(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p. 58.

28) Ibid., p. 348.

그러나 그는 “모든 만물에 앞서 태어난 자”(골1:15)로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존재 안에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대상들 가운데 “한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 곧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대상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유의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자체”이다. 그는 삼위일체의 세 인격 중 한 인격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배제된 선택의 대상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선택의 주체로서 이 선택에 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다.²⁹⁾

바르트는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택 의지의 거울, 혹은 계시로서만 말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결정적인 점은 창조 이전의 ‘원 역사’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점이고, 이 하나님인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과 하나되어 선택의 적극적 주체였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원초적인 작정은, 창조, 화해 및 구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지배하고 규정한다. 성부께서 성자와 더불어 인류 구원을 위한 이와같은 결단을 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해, 바르트는 “은혜의 선택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르트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으로 봄으로써, 그의 신학과 하나님과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 이 선택론의 큰 역할을 결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는 것이다.³⁰⁾

29) 김균진, op. cit., pp. 311-312.

이제 모든 인간은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순종한 그리스도의 선택과 함께 선택되었다.³¹⁾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선택되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선택과 소명과 믿음에로의 부르심의 약속이 된다. 바르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을 그에 의해서, 역시 하나님의 의지인 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택으로서 계시하였다. 이분은 자기 자신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실존할 때 전적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의 배후에 있어서 하나님의 태초에 작정된 것, 곧 말씀되었고, 살아 계시는 유일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이다.³²⁾

따라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결단을 확고히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³³⁾

30) 데이비드 L. 물러, 「칼 바르트의 신학 사상」, 이형기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6), p. 119.

31) 이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바르트는 요한복음 13:18, 15, 16, 19장에서 발견함. 여기에서 예수는 그의 제자를 선택하는 자로 나타나는데, 이 선택은 예수 자신의 기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며, 하나님의 원초적인 결단이 이 행위에 나타난다 : C.D., II/2, pp. 113-114.

32) 김균진, op. cit., pp. 312-313 : 바르트는 자기의 견해를 아타나스우스와 어거스틴에게서 발견함. C.D., II/2, p. 117.

33) Ibid., p. 119.

C. 예정론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

1. 예정의 인식론적 근거

선택하는 하나님인 동시에 선택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존재 안에 있다. 따라서 예정의 주체와 객체의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규정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며, 예정하는 하나님과 예정된 인간이 누구인가를 인식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떠나서는 안된다.

예정론의 근거, “예정된 실체”(Substanz)는 신비적인, 우리 인간에게 인식될 수 없는 비정의 ‘절대적 결정’(decretum absolutum)³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예정론의 인식론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기독론의 전통적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이 역사에 대한 전제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였다. 물론 전통적인 예정론도 이 전제를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켜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대상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일반 인간, 인류 전체나 개인들의 총화로써의 인간을 뜻하였다.

34) 칼 바르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의 절대적 주권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예로, 어떤 사람은 유기로 이중 예정하셨다”고 주장하는 전통적 예정론의 ‘절대적결정’(decretum absolutum)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 하였다. “나는 칼빈의 예정론으로부터 그렇게 철저히 벗어나기 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따르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 그 자체가 내게 말하게 하고, 또 내게 들리는 바를 심사숙고한 결과 나는 불가피하게 그것을 재구성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C.D., II/2, 머리말 부분.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었고 그 안에서 계시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인식에 대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고 양자의 관계 및 질서에 대한 모든 앎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³⁵⁾

2.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신학의 전통이 말하듯이, 또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시간과 시간의 모든 내용을 선행하는... 시간과 그의 모든 내용에 관한 신적인 규정”이다. 타락 이전의 예정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모든 사물의 시작”이요, 하나님과 인간, 세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관계의 시작”이다.³⁶⁾

그러나 이와 같은 예정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리고 모든 사물에 대한 진리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예정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으며, 은폐되어 있지 않고 열려져 있다.”³⁷⁾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떠날 수 없다. 바로 여기에 전통적 예정론과의 “차이”가 있으며, 전통적 예정론의 “혁신”이 있다고 바르트는 말한다.³⁸⁾

여기에서 “모든 만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는 하나님의 결정, 곧 선택하는 하나님인 동시에 선택된 그리스도와 아들의 단일성 가운데 있는 양자, 사람의 아들에게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하나님의

35) 김근진, 「헤겔과 바르트」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8), pp. 317-318.

36) C.D., II/1, p. 701.

37) C.D., II/2, p. 168.

38) C.D., II/2, p. 170.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결속시키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힘 가운데 수행되었고, 봉인되었으며, 완전한 개방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완전한 성실하심 가운데서 불러 일으키는 은혜의 계약을 말한다. 바로 이 결정이 “하나님과 또 그와 다른 현실 사이의 모든 것에 대하여 기초가 되는 결단”이며,³⁹⁾ “하나님과 또 다른 현실의 관계안에 있는 모든 질서와 모든 법의 기준이며 원천”이다. 이 결정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이 의지 이외의 어떤 다른 신적인 의지를 질문할 수 없다. 모든 만물의 시작인 이 결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따라서 그것은 전통적 예정론이 말하는 ‘절대적 결정’이 아니다.⁴⁰⁾

3. 하나님의 행동에서 나타난 영원한 예정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하나의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역사와 만남의 결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신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하나의 생동적인 행위이며, 그의 전체성에 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과 그의 의지와 결단과 그의 독자적인 실존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다.⁴¹⁾

바르트는, 하나님의 예정은 일면에 있어서 완성되고 끝났으며, 사실상 모

39) 따라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예정이 창조보다 앞선다고 생각한다. 창조 이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의 은혜로운 선택”을 뜻하며, 이 선택은 “하나님과 인간의 은혜의 계약”이라고 말함 : C.D., III/4, p. 43.

40) Ibid., pp. 318-319 : 바르트는 ‘절대적 결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주장한다. 바로 여기에 “예정론의 결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말한다 : C.D., II/2, p. 175.

41) C.D., II/2, p. 198.

든 피조물의 삶에 대하여 그의 예정으로서 선행한다. 그러나 모든 사물들의 시작을 형성하는 이 예정은 시간의 시작과 함께 중지되고 끝나 버린 것이 아니다. 예정이란 개념은 완결되어 버렸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의 개념이 아니다. 예정은 시간적 사건의 영원한 규정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충만한 힘과 함께 오늘도 일어나는 행위이다.⁴²⁾ 그것은 하나의 영원한 사건이며, 그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발생한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소명과 의화와 성화와 영화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통하여 일어난다.⁴³⁾

그러나 바르트는 예정론이 하나의 역사 철학으로 변질되는 것을 거부한다, “예정은 보편적이며, 시간적인 세계의 흐름 속으로 폐지되거나, 세계의 사건이 그 의미와 목적이 도달하는 특별한 구원의 사건으로 폐지되어서는 안된다.⁴⁴⁾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사와 만남의 결단이며, 구원의 사건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세계의 사건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세계의 사건 자체 속에 숨어있지 않으며, 특별한 구원의 사건 자체 속에 계시되는 비밀이다. 모든 삶의 비밀은 이 삶을 창조하셨고,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존재이다. 세계 내의 모든 사건의 비밀은, 이 사건을 영원히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이다.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며, 세계 내의 모든 다른 사건은 구원의 사건을 지향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⁴⁵⁾

이와같이 예정은 보편적인 세계사의 과정으로 폐기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에 관해 알면서 단지

42) C.D., II/2, pp. 198-204.

43) C.D., II/2, p. 211.

44) 김균진, op. cit., p. 322.

45) C.D., II/2, p. 203.

보편적인 세계의 사건 속에서 숨은 현실로 인식할 수 있는 거기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밀로 남아 있다. 그것은 현재적 비밀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시간적 역사와 만남과 결단의 현재적으로 계시된 비밀이다.⁴⁶⁾

D. 예정의 대상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에 관해서 바르트의 언급은 독특하다. 선택을 언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성경적인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 선택된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교회, 선택된 개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에서 직접 개인의 선택으로 옮겨갈 것을 거부한다. 그는 개인의 선택을 논의하기에 앞서 공동체,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을 먼저 다룬다.⁴⁷⁾

1.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제 2인격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선택의 주체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 곧 선택의 주체인 동시에 선택된 인간으로서 선택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택된다고 바르트는 말한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

46) C.D., II/2, pp. 203-204.

47) C.D., II/2, pp. 34-35.

님의 영원한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조물의 존재를,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인간과의 계약을 집행하고자 한다. 즉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한다.⁴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선택된 자들 가운데서 한 선택된 자가 아니라 “근원적이지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선택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로서 모든 다른 선택된 자들의 주요, 머리이며, 선택의 모범이며, 선택의 원형이며, 그들의 선택의 계시와 거울이며, 모든 신적인 선택의 기관과 도구이다. 곧 전적으로 유일하고, 바로 이 유일한 가운데서 보편적인 의미가 효력을 지니고 선택하는 자인 바로 그 분의 선택이다.”⁴⁹⁾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인간”이라는 명제 속에 함축된 의미를 세 가지로 표현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하나님의 모든 길과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⁵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는 자체 내에 모든 다른 말들, 결정들 및 시작들을 포함하고 계신다.⁵¹⁾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고난과 죽음에로의 택함이다. 바르트는 이에 대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니”(행2:23), 또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눅24:26) 등의 구절들을 인용하여 증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버림을 받

48) 김균진, *op. cit.*, p. 313.

49) C.D., II/2, p. 125.

50) C.D., II/2, p. 120.

51) C.D., II/2, p. 95.

았다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아들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된다. 그 결과 우리 죄인은 버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다는 것이다.⁵²⁾

선택된 인간 예수에게는 고난과 죽음이 결정되었고, 그가 저주받은 자를 위하여 저주와 고난을 당함으로 인간들은 선택을 받는다.⁵³⁾ 그러므로 인간 예수의 선택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격노가 일어나고 심판이 선고되고, 집행되며, 버림이 현실화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한 것이며, 그의 의는 자비롭고 완전하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사탄의 저주를 인간은 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⁵⁴⁾

그러므로 바르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들을 구원해 주려는 의지이다. 이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예정은 이중 예정을 말하는 것이다. 즉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는 반면에, 자기 자신에게는 이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는 것이다.⁵⁵⁾

셋째, 인간 예수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도록 결정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된 인간을 책임지며, 그들이 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것을 뜻한다. 곧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의미한다.

결국 바르트는 선택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의 선택이 포함됨”과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말한다.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고난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다.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52) 이종성, 「신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p. 368.

53) C.D., II/2, p. 124 : 그러므로 선택은 “자유로운 은혜”요, “하나님의 성실과 인내”이다.

54) C.D., II/2, pp. 133-134.

55) C.D., II/2, p. 507.

된 양”이다. 이미·저주와, 죽음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바르트는 인간의 유기를 부정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그리스도는 “예정 대상”인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길과 역사의 시작이다.”⁵⁶⁾

위의 내용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다른 자들의 정점과 자리에 선택한다. 즉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대리자로서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2. 공동체의 선택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에 있어서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고, 그 대상은 인간인데, 이 인간은 우선 개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한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규정되고 능력을 부여받은 공동체이다. 이것은 사림으로서의 공동체이다. 또한 이 공동체는 전 세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 세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도록 권유하는 특수성을 가지며, 개인 자신을 넘어서 모든 인간의 사림을 언제나 지향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형태로서의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분의 심판을 나타내며, 교회 형태로서의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분의 자비를 나타낸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인간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약속을 들음으로서 한정되며, 교회 공동체는 그 약속을 믿는 것으로 규정된다.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는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는 형태로 주어지며, 어떤 경우에는 오는 형태로 주어진다.⁵⁷⁾ 이 부분을 구분해서 자세히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56) C.D., II/2, p. 126.

57) C.D., II/2, p. 215.

a. 이스라엘과 교회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모든 창조의 영원히 생동적인 시작”이다. 따라서 인간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진다. “선택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선택함을 뜻한다.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선택 되었음을 뜻한다. “다른 선택” 곧 “그 가운데 제외되지 않은 많은 사람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 포괄되어 있다.”⁵⁸⁾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이중 양태를 가지고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택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하여 매개되며, 조건지워 진다고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인간의 선택을 포함하지만,⁵⁹⁾ 그렇다고 인간 개개인의 선택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모든 신앙하는 사람, 개개인에 대한 선택의 관계가 공동체를 통하여 중재되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선택은 하나의 중간적이고, 중재적인 선택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누구이며,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동시에 교회의 머리요 주이다. 즉 교회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이다’ 라는 말에서 상이성과 통일성이 성립된다.

바르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가진 두 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의 사귄(*Gemeinschaft*)을 선택하기 위하

58) 김균진, op. cit., p. 323.

59) C.D., II/2, pp. 195-197.

여60) 하나님이 자신을 규정하신 하나님의 적절한 증인으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이며, 동시에 교회의 주이시며, 이스라엘은 첫 사람 아담의 형태인 사멸(*Vergehen*)의 시작인 동시에, 그의 공동체의 장차 올 형태를 예시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의 사귀를 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적절한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교회의 중심이다. 그는 인간의 새로운 형태로 은총으로 오시는 승리의 시작이며, 부활한 주님으로서만 개방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낡은, 지나가 버리는” 실존의 형식을 나타내 준 새로운 “장차 올” 실존의 형식을 나타내는 자이다.

그러면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바르트는 로마서 9-11장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공동체의 두가지 측면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택함받은 공동체로 논하고 있다. 이스라엘로서의 공동체와 교회로서의 공동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며, 교회로서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로서의 공동체는 교회라고 말한다.⁶¹⁾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두가지 면에 상응해서, 선택된 공동체도 이스라엘과 교회의 이중 양태를 갖고 있다.⁶²⁾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 즉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이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교회의 고백에 연합하기를 거부하고, 선택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가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유대교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였다. 이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의식성, 무능력, 무가치성을 나타내는 공동체이다.

60) 여기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증인이 될 “공동체”를 말한다.

61) C.D., II/2, pp. 216-219.

62) 김균진, *Ibid.*, pp. 324-325.

또한 그들은 자기의 메시아를 못박음으로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義)를 증거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옛 인간의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력과 반항을 보여 주는 공동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교회의 숨은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나타낸다.

또한 이스라엘이 교회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자신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에, 전체적으로 선택된 단일성이 이스라엘에게 열리며, 이스라엘의 기능과 위치가 드러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사랑에 대한 불만과 무력감과 무가치함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유일한 기쁨과 찬양을 드러내게 된다.

다음으로, 교회는 이스라엘의 선택을 근거로 부름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임이다. 교회는 죄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즉 교회는, 이스라엘의 선택의 근거 위에서 부름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임인 동시에 알려진 이스라엘의 규정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선택에 저항한 유대 민족이며, 교회는 이스라엘의 선택된 토대 위에서 부름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이중 양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선택된다. 이스라엘에서는 선택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짐이 있고, 교회에서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향하심이 있다. 이것이 선택된 공동체의 두 양태이다.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의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안에서 그 자신의 선택을 인식할 때, 교회가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됨을 알 때, 선택된 전체 공동체가 개방되며, 이 단일성 안에서 교회 자신의 기능과 위치를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단일성과 상이성 속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의 중간 즉 중재적인 대상이라고 바르트는 말하고 있다.⁶³⁾

63) C.D., II/2, pp. 219-222.

여기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의 현실성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그에 대한 신앙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b. 공동체의 기능-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교회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를 기술하고 이를 전 세계에 증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능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기술하는데 있다. 자세히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스라엘의 기능(심판의 거울)

이스라엘의 기능은 본래 인간이 당해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고자 하는 바 “심판의 거울”이 되는데 있다.⁶⁴⁾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으며, 선택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로서의 지정된 직무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이스라엘이 수행할 수 있는 공헌은, 예수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능력과 무가치성을 세계에 보여주고 이를 알게 하는데 있다. 즉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인간에게 일어난 심판의 의(義)를 증거하는데 있다.

또한 바르트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형태는,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선택을 통하여 인간과의 사귀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자신에 대하여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고 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이

64) C.D., II/2, p. 207 : 하나님의 선택은 본래 선택되었던 자의 선택이 아니라 본래 선택되지 않았던 자, 곧 “다른 자의 선택”이란 사실을 유대인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이 다른 자 안에서, 다른 자와 함께 이루어 지는 선택일 뿐이다 : C.D., III/3, p. 255.

아니라 반항하는 백성을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반항 가운데서, 그들의 저주와 치욕과 죽음 가운데서 고난을 택하신다. 따라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서만 인간의 비참함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⁶⁵⁾

바르트에 의하면, 이처럼 공동체는 선택에 포함되며, 선택을 수행한다. 또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해야만 한다. 공동체는 그의 선택을 그리고 그의 선택과 함께 이스라엘의 선택을 확증하며, 또한 이것과 함께 교회의 선택을 확증해야만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가 오고, 그의 선택에 상응하여 이스라엘에 의하여 넘겨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그의 부활에서 그가 약속된 자로 확증되고, 이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⁶⁶⁾

(2) 교회의 기능(자비의 거울)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서 교회가 가진 기능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의 영광을 인간에게 향하시는 “자비의 거울” 이 되는데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형성된 교회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인간에게 일어난 심판의 신적인 의미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무가치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을 증거하는데 있다.

이 교회의 기능은 이스라엘의 기능과 다른 특별한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기능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기능을 하나의 필연적인 보조 기능으로서 필요로 하며 그것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능 내지 과제는 교회 내에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의 증거는 교회의 증거, 곧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증거를 위한 것이요, 교

65) C.D., II/2, pp. 227-228.

66) C.D., II/2, p. 229.

회를 증거하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⁶⁷⁾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교회적인 형태는,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은혜의 선택을 통하여 인간을 자기와의 사귄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인간에 대하여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그는 인간에 대하여 완전히 그 자신을 버리고, 그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을 결정한다.

공동체의 교회적인 형태는 인간에 대한 원초적인 결단과 근본적인 결단이 “하나님의 자비” 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 속에 포괄된 것이며, 그의 분노는 그의 사랑 안에 포괄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동체의 교회 형태는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관계,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관계처럼, 공동체의 이스라엘 형태와 상호관계를 가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부정적인 면을 증거하는 반면,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긍정적인 면을 증거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메시지는 긍정적 메시지 아래 있으면 그 속에 포괄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스라엘 선택의 목표이며 근거이다.⁶⁸⁾

또한 바르트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사라지는 자” 와 “올 자”로 그 관계를 표현한다. 지나간 형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선택에서 인간과의 친교를 택할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을 위하여 약함, 고통, 병든, 죽음을 택하였다는 것을 제시한다.⁶⁹⁾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에게 향해 오심(*Zuwendung*)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알게 된다. 즉 이스라엘은 인간의 결핍과 하나님의 자비의 깊이를 동시에 제시한다.

한편, 교회는 오고 있는 새로운 인간을 증거하는 특수한 임무를 가지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그 자신을 그들의 친구로 선택하신 것을 보여주는 특수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⁷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

67) C.D., II/2, pp. 331-332.

68) C.D., II/2, pp. 232-233.

69) C.D., II/2, p. 289.

어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은폐되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본래의 목적과 근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교회는 이스라엘 안에 선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한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의 완전한 형태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 규정의 성취이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전 세계에 전해야 할 소식은, 교회의 메시지로서 그의 본래적인 형태, 곧 복음, 기쁜 소식의 형식을 얻기 때문이다.⁷¹⁾

바르트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⁷²⁾ 교회는 이스라엘과 분리 될 수 없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원한 계약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인식한다고 한다.⁷³⁾

이와 같이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버림과 선택,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명되며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c. 하나님의 약속과 공동체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택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약의 증거자로 삼으신다. 이 한 분을 선택하신 의도는, 사람들이 그 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증거를 약속과 확언으로 들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선택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시되는 자리, 인간이 그 약속을 듣고 믿는 자리, 하나님이 자기 증거와 인간을 위한 하나

70) C.D., II/2, p. 264.

71) C.D., II/2, p. 282.

72) 이스라엘이 존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에 기인한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세계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존손한다는 “세계사의 이 주제”를 “체현” 한다 : C.D., III/3, p. 247.

73) C.D., II/2, p. 267.

님의 선한 의지와 역사의. 계시가 들려지는 자리이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에서 공동체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성취된 약속이다. 또한 공동체는 온 세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들음과 믿음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사역하도록 선택되었다.⁷⁴⁾

첫째, 이스라엘의 특별한 직무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으며 수용하는 데서 성립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스라엘의 이 직무를 필요로 한다. 약속을 듣는 바 없이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기 증언은 약속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왕의 형태가 아니라 종의 형태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이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시는 하나님과 선택된 공동체는 공허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까지도 포용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의 불복종과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 내용, 범위를 바꿀 수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물러날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그치게 할 수 없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공동체가 구별되면서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서 성립한다.⁷⁵⁾

둘째, 교회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들음으로써 증언의 직무를 지닌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말씀을 믿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교회는 말씀을 믿는 자와 실행하는 자를 예시하는 형태로서 이스라엘 안에 미리 선재한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근거 위에서 즉 약속을 들음으로써 직무를 수행한다.

74) C.D., II/2, pp. 256-257.

75) C.D., II/2, p. 260.

교회가 약속을 듣고 이 약속에 대한 신앙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것이다.⁷⁶⁾

바르트에 의하면 신앙과 교회는 이미 이스라엘의 선택의 목표이며 근거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생활해 온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와 신앙의 역사는 동시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완전한 형태에의 참여자이며, 세계와 관련된 공동체의 선교 기능에의 참여자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선재하는 교회의 현실성 즉 이스라엘의 소수 신자들의 의미는,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난 교회의 예시적인 모습을 말해 주는데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앙하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들음에서 교회 자신의 신앙을 인식하며, 그 소수자들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함께 선택된 자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스라엘의 근거 위에서만 즉 약속을 듣는다는 전제 위에서만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합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⁷⁷⁾

d. 옛 사람과 새 사람

하나님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데, 인간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르트에 의하면, 이 한 사람의 선택은 죽음과 삶,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선택이다.

공동체는 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규정에 상응하여 이중적 형태 즉, 옛 형태와 새로운 형태, 죽음의 형태와 삶의 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공동체의 직무는 이 이중적 형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76) C.D., II/2, pp. 258-259.

77) C.D., II/2, p. 264.

데 있다. 파멸 속에서, 죽음 속에서, 낡은 것의 청산 속에서 즉 그의 선택과 반항하는 인간성의 청산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것이다.⁷⁸⁾ 교회는 이것을 필요로 한다.

이스라엘의 형태를 가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선택에서 인간과의 친교를 택할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을 위하여 약함, 고통, 병들, 죽음을 택하였다는 것을 계시하신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역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에게 향하심이 얼마나 완벽한지 알 수 있게 된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선택의 목적을 그르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루어 지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을 위하여 열심을 내도록 하셨다. 이와 관련하여 이중의 불가사의를 말한다. 먼저, 구원과 선택의 희망이 없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선택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선택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⁷⁹⁾

바르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길과는 달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직무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하나님의 왕국, 새 인간, 영원한 삶을 입증하는데 있다.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삶의 대상을 불러 일으키고, 불러 모으고, 파송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예수의 들리우심을 예수의 겸비의 목표로, 그의 나라를 그의 고통의 목표로, 그의 오심을 그의 죽으심의 목표로 선포한다. 그러

78) C.D., II/2, p. 268.

79) C.D., II/2, pp. 307-327.

므로 교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전 공동체에 위탁된 몫인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말씀이다.

공동체의 교회의 형태는,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선택에서 인간을 위하여 택하시는 영역을 계시하신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시되 영원토록 선택하시며,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영원한 구원의 제공자, 보증인으로 택하신다. 따라서 선택된 인간은 구원에의 참여자가 된다. 이러한 교회는 죽음보다도 삶을, 옛 사람보다도 새 사람을 고백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은폐되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본래의 목적과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는 태초부터 그의 교회가 존재한다. 즉 교회는 이스라엘 안에 선재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한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의 완전한 형태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정의 성취이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전 세계에 전해야 할 소식은, 교회의 메시지로써 그의 본래적인 형태, 곧 복음, 기쁜 소식의 형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뜻, 위로와 축복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존재한 것처럼 복음도 선재하였다. 그리고 복음이 이스라엘에 선재하였기에 이스라엘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우주적 사명을 가지게 된다. 바르트에 있어서 십자가의 못박힘이 예수의 부활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의 고난사 또한 복음의 선역자(*Vorgeschichte*)와의 관계에서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선재하는 교회의 예표 즉, 소수자들의 현실성은 부활한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름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복음, 위로, 축복을 받을 때 계시된다. 그러나 진정하고도 유일하게 위로와 축복을 받은 자로서 '남은 자'는 인간 예수이다.⁸⁰⁾

이 예수는 전 이스라엘의 목표가 되는 자로, 현재하는 자로 나타난다. 이 예수로 말미암은 교회는 세계를 화해시키는 데에 매개의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버림 받음을 이용한다. 그러나 교회는 이스라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며, 이스라엘에 걸려 있는 희망과 운명을 같이 한다.

3. 개인의 선택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공동체의 선택을 논한 다음, 마지막으로 개인의 선택을 논술한다. 그런데 바르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은 사사로운 개인들이 아니라,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온 세상에 증거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동체 선택의 의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⁸⁰⁾ 한편 바르트는 공동체의 선택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면서도 개인의 선택의 중요성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일어났으며, 이것을 매개시키는 자는 교회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의 대상은 인간들이다. 그러나 이때 개인들이란 집단과 관련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의 쇠잔하는 형태였지만 다만 예정된 개인들 일 뿐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개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즉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집단들을, 그리고 인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며, 거룩케 하신다.⁸²⁾

따라서 바르트가 관심 갖는 개인은 공동체와 관련된 개인이며, 개인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통치와 역사를 통하여 공동체의 선택도 그

80) C.D., II/2, pp. 290-294.

81) 이스라엘과 교회의 선택, 개인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선택에 “포함되어 있다” : C.D., III/2, p. 582.

82) C.D., II/2, p. 344.

목적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공동체의 선택과 개인의 선택의 관계를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 다른 선택 즉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 “다수의 선택”이 있다.⁸³⁾ 따라서 “개인의 선택”은 “공동체의 선택”의 울타리 안에 있다.⁸⁴⁾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관계성 하에 있는 바르트의 개인의 선택을 살펴보기로 하자.

a.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 약속의 수납자

바르트에 의하면, 각 개인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공동체의 선택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생각될 수 없다. 개인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선택에 포함될 때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선택과의 엄격한 관련성 속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목표는 개인이다. 그리고 진정한 개체성(*Einzelheit*)은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다. 각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의 대상”이다. 각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이며, 그것은 영원 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 되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결정된 것은 구체적으로 각 개인을 위한 것이다.⁸⁵⁾ 이 각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그 개체성이 확립된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 개체성은 긍정적인 의미의 개체성과 부정적인 의미의 개체성으로 나누어 진다. 먼저 긍정적인 의미의 개체성을 가진 예정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의 이 개체성이나 자유는 스스로 선택된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의 유비에서 이해될 수 있고

83) C.D., II/2, p. 595.

84) C.D., II/2, p. 311.

85) C.D., II/2, pp. 340-341.

그 은총 안에서만 근거한다.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의 삶의 상태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연적인 “그런 까닭에(*darum*)”와 함께 그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trotzdem*)”와 함께 그를 만나시기 때문이다. 이 예정된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된 사람이다.

그리고, 부정적 의미의 개체성을 가진 예정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개체성”을 의미한다. 그 자체의 공적과 능력을 자랑하는 이 개체성은 왜곡된 형태로서 하나님에 의해 부정된다. 동료 인간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고립이다. 이것은 사탄의 가능성과 인간의 무신성(*Gottlosigkeit*)이며, 이 안에서 인간은 공허나 무(*Nichtige*)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개별화된 인간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선택”이다.⁸⁶⁾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개별화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 개별화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하여 “배제되어 버린 가능성”이요,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히 “부정된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단, 영원한 선택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는다. 그가 택하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부정하였고 폐기시켰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결코 부정하거나 폐기 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선택된 자가 선택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선택의 약속을 듣고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선택된 자로서의 그의 “존재”를 위해서가

86) C.D., II/2, p. 347.

아니라 그의 “삶”을 위해서 그는 약속을 듣고 믿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는 선택되었지만 이 약속을 믿지 않을 때에, 그는 그의 선택됨에도 불구하고 저주된 자로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선택받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⁸⁷⁾

그러나 그가 저주 받은자로 살지라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의 선택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이러한 자에게도 그의 선택의 약속을 증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력하게 된 저주의 위협”을 증거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력하게 된 선택의 약속”을 증거해야 한다. 이 위협은 선택의 약속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공동체는 신적인 은혜의 선택의 사실과 계시를 단지 증거할 수 있을 뿐이다.

공동체는 바로 이 증거를 결코 피할 수 없다. 그가 향하는 각자에게 그의 선택의 약속을 전하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은총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바르트의 예정론의 독특한 점이다.⁸⁸⁾

b.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1) 선택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의 구별

바르트도 “선택과 버림을 구별한다.” 이 구별은 바로 “그들의 소명”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그들 자신의 선택으로 선포되고 신앙으로 확신되는 것이 곧 선택된 자들의 소명을 뜻하며, 이 소명을 통하여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선택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과 상응된

87) C.D., II/2, p. 353.

88) C.D., II/2, pp. 351-359.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들이 선택된 자들 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그들의 선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그의 자유 가운데서 그것을 그렇게 결정하였다.⁸⁹⁾

바르트에 의하면, 버림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서 일어난 그들 자신의 선택을 거부하고, 소명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에 의하여 저주받고 버려지는가?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버림받은 자들의 삶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객관적인 불가능성'이 되게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은 자들의 삶을 자기 삶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⁹⁰⁾

이 '객관적인 불가능성'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배제되어 버린 가능성'을, 버림받은 자들은 취하기 위해 헛되이 노력할 뿐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버려지는 것이다. 선택된 자들은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선택의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인 반면에, 버림받은 자들은 이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를 계시하는데 봉사하는 것이다.

선택된 자들은 선택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의 삶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반복하고 묘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양자 모두에 의해서 증거되며, 이 양자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여기에서 바르트는 비록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를 구별하지만 실질적

89) C.D., II/2, pp. 375-378.

90) C.D., II/2, p. 381.

궁극적 의미에서 선택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의 구별보다 양자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하게된다.

(2) 선택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의 관계

바르트에 있어서 선택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의 대립은 상대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선택된 자들의 관계는 “회상(*Eeinnerung*)”이고, 버림받은 자들의 관계의 특징은 “기대(*Erwartung*)”이다.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선택되었다. 선택된 자들은 이미 소명을 받아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항상 “회상”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버림받은 자들은 아직 소명을 받지 못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항상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선택의 근거는 결코 그들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내적 가능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서 시작되어 진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들도 결국 하나님없는 자들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이에 반하여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아직 의도되지 않은 자들로 단지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단지 잠재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일 뿐이다.⁹¹⁾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당해야 할 심판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택될 수 있는 자들로 기대할 수 있다.⁹²⁾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91) C.D., II/2, p. 382-385.

92) 이것을 G. Ebeling은 선택과 버림의 두 가능성 중에 선택의 가능성이 더 큰 비중을 가진다고 표현한다 “G. Ebeling, *Dogmatik des christlichen Glaubens*, III, Tuebingem 1979, p. 527.

선택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수행해야 할 증언은, 하나님의 선택과 버림이 서로 대립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이 근본적으로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버림은 배제된 가능성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것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93)

버림받은 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선택된 자들은 자신들도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이 사실을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알기를 기대할 수 있다. 선택된 자들은 그들을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이와같이 선택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의 대립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본래 받아야 할 버림을 대신 받기로 선택되지 않았더라면, 모든 인간은 똑같이 버림받은 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란 그들의 버림받음으로부터 선택된 버림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본래 버림받은 자이지 않았던 선택된 자는 아무도 없다.94) 이제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을 떠나서 선택된 자들을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의 선택으로부터 볼 때에 그 외에는 아무도 버림받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버림받은 자들의 선택을 위하여 그는 그들 모두에 대하여 고독하게 대칭되어 왔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 그는 ‘버림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의 ‘그 대상’이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의 주이시요, 머리이시며, 증거의 대상이시다.

선택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면인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증거하며, 그들의 대립 가운데서 형제들이요, 존재와 기능에 있어서 상호 관계되어 통일성을 형성한다. 서로 대립하여서만 있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있다. 이 양자는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

93) C.D., II/2, p. 459.

94) C.D., II/2, p. 532.

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⁹⁵⁾

c. 선택받은 자의 규정

바르트는 선택받은 자들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⁹⁶⁾

첫째, 선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선택된 자들이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의 새로운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이다.

둘째, 선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들과 함께 선택된 자 곧 그의 중재를 통하여 선택된 자이며, 그의 지체로 선택된 자들이다.

셋째, 선택된 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된 자의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규정이다. 즉 우리는 육체 안에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받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택된 자의 규정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규정이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받는 백성이요, 회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된 각 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결정된 자이다.

넷째, 선택된 자는 축복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들 안에서 인간과의 연합으로 자신을 규정하셨을 때, 즉 하나님이 바로 그 분 안에서 자신을 내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셨다.

95)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들의 상호 관계를 바르트는, 성경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하여 증명한다, 예를 든다면, 아벨→노아→이삭→야곱→레아→이스라엘, 가인→이스라엘→에서→라헬→애굽(C.D., II/2, pp. 391-392) 이 관계를 바르트는 열왕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과 벰엘 출신의 예언자의 예를 통하여 증명하기도 한다 : C.D., II/2, pp. 434-442.

96) 김균진, op. cit., pp. 337-338.

다섯째,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감사를 드리는 자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상응함을 말한다. 선택된 자는 은혜로운 하나님께 상응하며, 그의 피조물적인 형상 즉 그를 닮은 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섯째,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택된 자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사명 가운데서 존재한다. 즉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사자이며, 사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영역은 결코 한정되어 있지 않다. 즉 선택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선택의 영역을 고착 상태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개방하고, 확장시키고, 확산시킨다.⁹⁷⁾

일곱째, 선택된 자는, 그의 선택과 소명과 더불어 살아 계신 하나님의 화해시키는 행위가 세계 속에서 계속되고 사건화 되게 하는데 있다.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자신을 개방하고, 확장하고, 성장하고, 증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된 자들이다. 선택과 소명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폐쇄가 아니라 개방이요, 배척이 아니라 포괄이다.

선택된 자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 세계에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말하는 것이다. 선택된 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긍정을 듣도록 말함으로써, 은총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묘사하며, 반영하다는 것을 증언한다. 즉 그의 직책은 단혀진 저주의 직책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⁹⁸⁾

d. 버림받은 자의 규정

97) C.D., II/2, pp. 453-458.

98) C.D., II/2, pp. 460-464.

바르트에 의하면;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은혜를 반대함으로 하나님께 대립하는 인간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한다.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만 그들은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며, 죄를 반복한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 버림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⁹⁹⁾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린 버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버림받은 자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의 영역 속에 있으며,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는 지나가 버리는 그림자의 형태를 나타낸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버림에 대하여 하나의 명확한 제한을 두었다. 버림받은 자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버림받을 수 있다. 그것은 비록 그들이 버림받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더 이상 버림받을 수 없는 것이다.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버림받은 자를 규정한다.

첫째, 버림받은 자는 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규정을, 그의 특유한 실존의 현실 속에 가지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그리고 보존에도 불구하고 상실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며, 선택되기 이전의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둘째, 버림받은 자는 복음을 통하여 무엇이 부정되고, 무엇이 극복되었는가를 밝히고, 계속 드러내야 할 규정을 그의 존재의 특유한 성격 속에 가지고 있다. 그는 거짓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거짓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그 자신을 기만하기 때문에 기만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줄도 모르며, 축복도 받지 못한 자이다. 바로 이 사람이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계약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99) C.D., II/2, p. 498.

의해서 그의 버림이 부인되고 극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의 버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셨다.

셋째, 버림받는 자는 복음의 의도를 보여주어야 할 규정을 그의 특유한 제한성 가운데 가지고 있다. 버림받은 자의 형태는 지나가는 형태이다. 버림받은 자는 아무런 미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자기 자신 속에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아무런 미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에게, 그와 더불어 계약을 맺음으로써, 미래를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버림받는 자로 존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의 선택으로 나아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자가 믿게 되고, 선택된 자로 되기를 원한다. 버림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곧 복음에 대한 비자발적이고 간접적인 증인이다. 그의 규정은 언제나 버림받는 자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듣고 신앙에 이르는데 있다.¹⁰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공동체의 선택에 대한 비자발적인 증인에서 자발적인 증인으로, 간접적인 증인에서 직접적인 증인으로 이행하는데 있다.¹⁰¹⁾

E. 이중 예정

바르트는 새로운 의미의 이중 예정을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아들의 성육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100) P. Althaus도 이와 유사하게 말한다 : 복음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지하고 참된 의지”이다. 복음에 대한 인간의 폐쇄성의 슬픈 사실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P. Althaus, *Die Christliche Wahrheit*, p. 630. 따라서 전통적인 이중 예정론은 타당하지 못하다 : *Ibid.*, p. 628.

101) C.D., II/2, pp. 502-508.

내어 주심을 통하여 예(*Ja*)와 아니오(*Nein*)의 이중성을 가지는데, 바르트는 이것을 이중 예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중 예정은 인간을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인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자기 선택을 말한다. 그는 “인간에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기 위하여 인간을 선택하며, 인간에게 계시될 수 있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고¹⁰²⁾ 말했다.

바르트는 이중 예정을 두 가지로 즉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말하며, 이 선택은 이중의 예정을 말하는데, 한 측면에 있어서는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선택 즉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 자신에게는 인간의 몫인 버림 즉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귀를 예정하고, 자신에게는 인간과의 사귀를 예정하는데, 즉 선택된 자의 버림과 버림받은 자의 선택을 예정한다는 말이다.¹⁰³⁾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정의 부정적인 측면 -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바르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언약의 파트너로 택하시고, 인간이 당해야 할 거부를 자신이 고난으로 담당하심으로써, 인간을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한 하나님의 영원한 부정을 의미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문자적으로 정죄가 없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신앙 그 자체는, 인간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신앙 혹은 버림에 대한 비 신앙을 의미한다. 인간은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102) C.D., II/2, p. 507.

103) C.D., II/2, p. 177.

목적에 있어서 그의 아들 안에서 버림을 받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했다.¹⁰⁴⁾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자신에 대하여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몫인 저주였다. 그리하여 인간의 죄는 사함을 받고 인간은 의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죄인의 의인이 바로 예정의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예정이란 것은 인간이 당해야 할 부정(*Nein*)을 하나님이 당하시고, 자신을 저주받은 자로 세움으로써, 인간을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한 하나님의 영원한 부정으로 뜻한다.

그러니까 예정을 믿는 신앙 자체는, 그야말로 인간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신앙이고 인간의 저버림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결국 바르트에 있어서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희생의 대가로 인간의 무죄를 영원전에 결정하셨다는 것이다.¹⁰⁵⁾

2. 예정의 긍정적인 측면 -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당해야 할 부정(*Nein*)을 자신의 부정으로 삼으심으로써 인간에게 긍정(*Ja*)을 부여하시기로 하시고, 인간의 몫인 저주와 심판을 자기가 취하는 대신, 자기의 몫인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비하(*Erniedrigung*)시켜 인간을 고양(*Erhöhung*)키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에게

104) C.D., II/2, pp. 166-167.

105) 전통적 예정론은 일정한 수의 선택된 자를 말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버림받았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물론 우리는 모든 인류가 선택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와 동시에 선택받은 자의 수를 임의로 고정시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된 자의 수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살아 계시며,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이다. C.D., II/2, p. 467.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바르트는 이중 예정에 있어 선택과 유기는 서로 평행적이지 아니며,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긍정적이며 유기에 있지 않다”고¹⁰⁶⁾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이 예정의 계시이며, 집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 이 예정은 공포와 불안을 동시에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쁨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¹⁰⁷⁾

비록 인생들은 위협해 오는 악의 세력 속에 살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종국적인 목적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의도가 생명과 축복을 위한 선택과 유기, 그리고 저주를 위한 전통적 교리에 반대한다.

확실히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에 악의 세력은 계속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것에 의하여 패배당하도록 예정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에의 참여를 위해 예정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뜻은 기쁨과 공포, 빛과 어두움의 혼합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 때문에 인간의 운명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다. 이것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켰다는 사실에서 증거된다. 이리하여 바르트는 구속사에서 성취되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에 도달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작정이야말로 일반 역사 이해의 열쇠가 된다고 주장한다.¹⁰⁸⁾

106) C.D., II, p. 174f.

107) C.D., II/2, pp. 185-191.

108) 데이비드 L. 플러, op. cit., p. 125.

III. 존 칼빈의 예정론

칼빈은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하여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로 결정하셨다고 하였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의 어느 한 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됨으로 그는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라고 칼빈은 말한다.¹⁰⁹⁾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바로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이며, 구원론의 핵심임과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신앙고백의 내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A. 칼빈의 신학에서의 예정론의 위치와 기초

1. 예정론의 위치

예정론은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예정론은 흔히 그의 신학의 대전제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그의 직계 제자인 Beza, 그리고 도르트회의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은 이 예정론을 특히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으로 여겨서 신학체계의 대전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의 저작인 「기독교 강요」 초판(1536년)에는 예정론이 독립된 항으로 취급, 논술되어 있지 않고, 교회에 관하여 말할 때, “선택받은 자의 무리”라는 말로 표시 되어 있으며, 다른 부분에서는 간접적인

109) *Inst.*, III, xxi, 5.

표현만 있었다는 점과, 제 2판(1539년)에 와서야 제 8장에 독립된 장으로 취급되고, 제 5판(1559년)에서도 제 3권 성령론 속에서 이신 득의, 회개, 성화, 기도 다음에 예정론을 다룸으로써, 칼빈에 있어서 예정 교리는 단순한 논리적 귀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다. 또한 1543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제2 제네바 신앙고백」에서도 예정 교리에 관한 것이 뒤로 미루어졌다는 것을 예로들어, 예정 교리가 다른 교리보다 뛰어난 위치를 점한다는 것을 부인하기도 한다.¹¹⁰⁾

또한 그의 예정론은 1537년 「제네바 요리문답(Genevan Catechism)」에서 칼빈은 예정 교리를 신의 결정(God's decrees)에 대한 추상적 사변이 아닌 목회적이고 실존적인 경험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 요리문답에서 예정론은, 12장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안다”와 14장 참 신앙 사이, 즉 13장에서 논의되었다. 즉 예정론이 기독교론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다.¹¹¹⁾

칼빈은 제네바에서 복음을 전파 하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이유를 목회적 관심에서 해명하려고 했다. 칼빈이 얻은 답은 인간의 신앙과 불신앙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종교적 경건성이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 창조전 행해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적 작정에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에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감추어진 사실로 남아있기를 원하셨다.”¹¹²⁾

칼빈은 초기부터 이중 예정을 주장하였고, 추상적 내지는 논리적 사변이 아니라, 교회 정의와 신앙 경험과 결부시켜 예정 교리를 취급했다.

110) Wilhelm Niesel,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pp. 165-166.

111) 「제네바 교리문답서 修正版」(1542)에서는 1536년의 「기독교 강요」의 배열로 되돌아 갔다. 「프랑스 신앙고백서」(1559)에는 예정론이 인간론 다음에 나오며, 따라서 기독교론과 구원론 앞에 나온다.

112) John Calvin, *Christliche Unterweisung Der Genfer Katechismus von 1537*, ubersetzt von Lathar Schuckett (Furche, 1963), p. 29.

칼빈은 1559년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는 예정 교리를 제 3권 끝 부분 (성령론 혹은 은혜를 수용하는 방법)과 제 4권(교회론) 직전에서 취급한다. 칼빈은 제 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 제 2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및 화해 사역을 다루고, 제 3권에서 이신 등의, 회개, 성화, 기도에 관하여 논한 다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성령을 통해 실현될 때 비로소 예정론을 취급하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칭의, 회개, 성화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특수 경험이 비로소 예정이라는 고백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이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이해된 주제를 따라 파악된 것이며, 동시에 실제 교회 경험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된 것임을 볼 때에,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의 위치는, 하나님의 은총 및 구원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논리적 귀결일 뿐만 아니라, 구원론에 관한 그 핵심을 이루는 교리임에 틀림 없다.

칼빈에 있어서 예정론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궁극적이고 필연적인 표현으로, 즉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2. 예정론의 기초

칼빈의 전 교리는 철저히 성경을 기초로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영감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에게 있어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계시된 뜻으로서 칼빈 신학의 유일한 근거이다. 칼빈은 성경에 분명히 근거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드릴 사람과 멸망에 내어 주실 사람들을, 오래전에 확증하셨다고 말한다. 선택된 사람에 관해서 이 계획은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하

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정 무흠하면서도 불가해한 판단으로, 저주에 남겨주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문을 닫으셨다.¹¹³⁾

그는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의 원전을 많이 인용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중심으로 삼았고,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권위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개혁자들보다 철저했다.¹¹⁴⁾

칼빈에 의하면 신구약 전체는 계시의 명료성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따라서 성경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있다. 칼빈 신학에 있어서 성경이 갖는 의미는 절대적이며, 그의 신학은 한결같이 기독교적 구조 안에서 전개 되었다. 그는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만일 이 목적이 벗어난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드려 연구한다 해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¹¹⁵⁾

이같이 그의 신학에 있어서 성경이 갖는 의미는 절대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은 일차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경에 대한 주석을 통하여, 부차적으로는 교회가 그 신학과 신조들을 통하여 성경을 읽어온 방법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서는 곳에서 멈추었다. 그는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믿었다.

113) *Inst.*, III, xxi, 7.

114) Harkness, G. E.,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Y.: Abingdon 1958, p. 65.

115) John Calvin, *Corpus Reformationum*, ed. G. Baum. E. Cunitz, E. Reuss (Brunswick. 1869-1896), vol. 47, p. 125.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신학과 교리 이해, 특별히 칼빈은 예정 교리 또한 성경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의 그러한 의지는 다음에 나오는 그의 말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주에 대하여 보아야 할 모든 것을 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을 비추어 지는 빛은 주의 말씀 뿐이다.¹¹⁶⁾

그리고 우리가 예정론에 대한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빈의 신학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칼빈은 연역적으로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 명료한 주장을 하지 않고, “역설적인” 표현 속에서 긴장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는 그는 “인위적인” 모든 “절대화”를 거부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질적 차이”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에서 이중적으로 병행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¹¹⁷⁾ 이것은 곧 칼빈의 신학이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이중적 지식(*Duplex Cognitio*)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칼빈은 교리의 사변적 체계화를 거부하며, 경건과 결부되지 아니한 모든 호기심을 부인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칼빈은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도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에 의한 “체험적” 깨달음을 강조한다.¹¹⁸⁾ 이러한 사실은 물론 예정론의 이해에도 적용된다. 즉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관계 맺음 속에서만 예정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체험적 신앙

116) *Inst.*, III, xxi, 2.

117) D.M. Mckim, “John Calvin: A Theologian for an age of limits.” 「in Readings Calvin's Theology」, pp. 306-307.

118) *Ibid.*, pp. 43-67.

없이 예정에 대해 사변적으로 논하는 것은 '위험한 바다'이며 무의미한 것이다. 예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맥락 속에서만 언급되어야 한다.¹¹⁹⁾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칼빈 신학의 특징은 신학의 전 부분이 실존적 신앙체험에 근거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 "한정된" 본문만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이러한 통전적인 접근이 없이 "문자적으로" 혹은 "폐쇄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칼빈의 원래 의도를 축소, 왜곡 및 오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B. 예정론의 창시자

예정의 작정은 그 전 부분의 계획과 의지에 있어서 한 분이신 삼위 일체인 세 위격의 협력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것과 같이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예정의 주권적인 행동은, 좀 더 특별히 성부에게로 돌려진다.(요17:6, 9; 롬8:29; 엡1:4; 벰전1:2) ¹²⁰⁾

1. 하나님의 절대주권

칼빈 사상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상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의, 인간의 운명과 자연과 자연의 법칙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것으로,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서

119) Ibid., p. 211

120) 루이스 벌코프, 「벌코프 조직신학(상)」, 권수경, 이상원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p 315.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¹²¹⁾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과 사건에 미친다. 하나님의 의지는 모든 피조물의 근거이며, 그의 영광은 만물의 목적이다. 여기서의 예정과 관계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려고 한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하고, 이어서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a. 작정(作定)과 하나님의 주권

세상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멀고 먼 영원으로부터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혜로 작정하시고, 일단 작정하신 것을 지금은 권능으로 수행하시는 만물의 지배자요 통치자이시다. 그러기에 하늘과 땅과 무생물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통치되어, 그들은 그들이 정해진 목적으로 정확히 인도되며, 따라서 어떤 것도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¹²²⁾

하나님은 전 우주의 소유자이며 소유권에는 소정의 권리가 수반된다.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모든 소유물을 다스릴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그의 능력은 전능하시며, 그의 주권은 궁극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요, 궁극적인 주권자이시므로, 그의 피조물에 대하여 장차 될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은 그 주권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이는 창조주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용을 필요로 하며, 허용된 일은 반드시 그 분의 결정의 소산이

121) 헨리 미터, 「칼빈주의 근본원리」, 신복윤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p. 70.

122) *Inst.*, I, xvi, 8.

다. 이 논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의지는 만물의 최고의 제일되는 원인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그의 명령이나 허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1552년 1월 1일 자로 헌제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한 그의 광범위한 책자에서, 그는 같은 취지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의 손은 외적 행위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내적 성정까지도 지배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인간의 손으로 행하시되, 반드시 먼저 인간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바로 그 의지를 작동하신다.¹²³⁾

칼빈은 선택과 유기의 문제와 관련된 그의 영원한 작정교리를 가장 요점적이고 예리하게 표현해 주는 것으로 1539년 10월 18일자로 스트라스부르 그에서 헌제된 그의 최초의 주석인 로마서 주석에서 이 문제에 관해 자기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꼭 알아야 할 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외에는, 그것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의 거룩한 규범으로 삼자. 즉 주님이 그의 거룩한 입을 다무실 때 우리 또한 길을 멈추고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하자.¹²⁴⁾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선택 및 유기와 관련하여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 가운데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절대적인 주권이다. 선택 문제에 있어서 그는 주장하기를 “신자들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무

123)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 in *Opera*(Brunswick, 1870), V III, Col. p. 358 : 참조. E.T. by Henry Cole: *Calvin's Calvinism*, London, 1927, p. 243.

124) 존 칼빈, 「칼빈성경주석」,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롬9:14, pp. 298-300.

상(無償)의 선한 뜻 외에, 어떤 다른 원인이나 이유도 고려될 수 없는” 하나님 영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버리시기 때문에 그 원인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 외에 다른 것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는 것이다.”¹²⁵⁾

칼빈은 “선택은 값없이 된 것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선택은 순서에 있어 신앙에 앞선다는 것을 말하며, 그러나 그것은 신앙에 의해서만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최고의 궁극적인 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선택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기의 경우에서 엄격하게 균립한다. 선택과 유기간의 차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보다 더 높거나 또는 보다 더 궁극적인 원인을 찾으려 해서는 안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순수한 주권이 선택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기의 기원이요, 설명이라는 것을 칼빈은 주장했다.¹²⁶⁾

b. 섭리(攝理)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들을 포함한다.¹²⁷⁾ 그래서 선한 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에게 적용되며, 인간들과 천사들의 거룩한 행동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죄악된 행동들에게도 적용된다. 신자의

125) Ibid.

126) J. 머레이,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용화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pp. 85-94.

127) 칼빈은 그의 *Defence of the Secret Providence of the God*(1558)에서 예정이라는 용어를 섭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그러나 나는 거룩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정을 무한한 지혜와 불가해한 공의로서 모든 인류와 인간과 사물과 그리고 세계의 모든 부분과 사소한 일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신 계획이라고 정의한다.” *Calvin's Calvinism*, p. 261.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 창조의 시작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속적 통치에서도 나타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분명하게 언급할 말은, 섭리란 일반적 동작이나 감독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에 의해서 통치되고, 그의 현존하는 손길에 의해서 지배되는 모든 사건들에 있다고 하는 칼빈의 주장일 것이다.¹²⁸⁾

세상의 제반사는 흔히 그것들의 질서, 이유, 목적, 그리고 필연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숨겨져 있어서, 인간이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 인간들에게 우연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까닭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 허용의 개념을 분명히 제외한다. 칼빈은 이에 대해 말한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고서는 아무 곳도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또한 그의 비밀한 지시에 의해서 그가 결정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수많은 분명한 증거들에 의해서 증명되기 때문이다.¹²⁹⁾

우리들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바로 그 생각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높이신 목적대로 움직여 진다.

칼빈은 주권 교리가 우리를 직면케 하는 신비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그는 불신이 이 교리에 거스려서 열거하는 반대들을 성경에 의거해서 항상 반박하고 있다. 그의 「기독교 강요」 제 1권 마지막 부분의 세 장에서 그가 벌리고 있는 논쟁의 대부분은 주권 교리와 관련되어 있다.

칼빈의 저작은 에스겔 20:4로 끝났다. 그는 20장 마지막 절까지 주석하지 못했다. 에스겔 18:23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128) J. 머레이, *Ibid.*, pp. 100-101.

129) *Inst.*, I, xviii, 1.

지와 고정된 수만을, 하나님이 예정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택 사이의 상위점을 다루면서 그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다시금 반대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이중성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것으로 만드는데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다소간 우리에게 수수께끼같은 방법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동일한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는 단순하지만 우리의 지각들에 관한 한 그 안에는 많은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강렬한 빛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도 모든 유기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저주하셨고,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내릴 수 없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못된다. 우리가 지금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자신의 지식의 분량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¹³⁰⁾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 점에서도 그의 명령에서 만큼 보다 더 적절하게, 그리고 보다 더 불가항력적인 강제력을 띠고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피조물인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사유권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가 명령을 발할 때에 그의 주권은 우리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피조물이 된 것이 그의 형상으로 빚어진 것임을 밝혀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의 무상의 주권과 그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복종을 명심케 한다. 그의 작정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점에서도, 우리의 책임성 있는 작위에 의해 그의 명령을

130) 존 칼빈, 「칼빈성경주석」, 겔18:23. E.T. by Thomas Meyers. 라틴어 동사 'velle'는 영어로 'wishes'(원하다) 보다는 'wills'(뜻하다, 결의하다)로 번역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본다.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적으로' 결의하지 않으시는 것을 그가 '명령적으로' 결의하신다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즉 괴리가 있다. 이 모순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단일하다'(simple, 라틴어로는 'simplex')라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도 제공하지 못한다.

범하는 경우에서 만큼, 보다 효과있게 전포괄적인 것으로 예시되고 정당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죄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주권 교리는 구속적 은총에 있어서 주권의 필수적인 조건이다.¹³¹⁾

2. 제한적 선택

칼빈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계약을 맺으시고, 어떤 민족을 자신에게 부르실 때에는, 그 중의 일부를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지, 무차별적인 은혜로 모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로마서 9장13 절의 바울의 말을 예로들어 제한된 선택을 주장한다.¹³²⁾ 그러나 복음의 선포는 악인들도 함께 듣는 것이므로 보편적인 것을 인정한다.¹³³⁾

이 복음 선포를 통한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먼저 외면적인 복음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일반적인 소명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사망에 이르는 범세요, 또 더욱 엄격한 정죄의 기회로 제시된다. 또 다른 부르심은 개별적인 것이다. 이것은 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다. 이와같이 특별한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나타내심으로 부르심은 선택의 증거가 된다.¹³⁴⁾

그러나 보편적 소명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약속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믿음만 있으면 죄인들 사이에 구별이 없다. 그러나 선택된 자들은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만, 악인들은 그 은혜를 잊고 거절한다.

따라서 구원의 약속이 아무리 보편적일 지라도, 그 약속의 결과를 주의해

131) J. 머레이, *Ibid.*, pp. 108-110.

132) *Inst.*, III, xxi, 7.

133) *Inst.*, III, xxiv, 1.

134) *Inst.*, III, xxi, 8.

본다면, 버림 받은 자들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복음을 통해서 이 두 종류 사람들에게 모두 제시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믿음 즉, 하나님의 조명이다. 그 결과 경건한 사람은 복음의 역사를 느끼고, 불경건한 사람은 복음에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 조명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척도가 된다.¹³⁵⁾ 그러므로 약속의 보편성으로도 하나님의 제한된 선택을 넘어설 수 없다. 또한 회심도 마찬가지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회심을 원하신다고 언명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권고를 보내신다. 그러나 권고의 효과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에 달렸다. 이는 우리가 사람을 창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자기 힘으로 더 훌륭한 본성을 입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¹³⁶⁾

하나님은 이같은 의미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부르시고 계시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만 중생시키는 아버지로서, 생명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자들만을 생명으로 불러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극에 의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며, 또한 회심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부여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모든 사람” 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칼빈은, 이것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편에서의 선택하시는 자유를 말할 뿐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을 불러야 한다는 어떤 고정된 법을 만들어 스스로 구속하지 않는 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매이지 않고 부르시는 자유를 가지신다는 것이다.¹³⁷⁾

135) *Inst.*, III, xxiv, 17.

136) *Inst.*, III, iii, 21.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공통으로 택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게 주신 더 큰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이 제한된 소수만을 저주와 진노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멸망의 운명을 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칼빈에 있어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된다. 칼빈은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신 사람들은, 그들 자체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말한다.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의 거울로 지칭한 것은 선택에 관한 확실성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¹³⁷⁾ 그것은 칼빈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강조한 사실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선택의 거울이라고 한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은 그들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실 수가 없고, 또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께 동참한 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천국 기업의 영광을 주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선택의 증표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

137) *Inst.*, III, xxiv, 17.

138) 몇가지 實例에서 칼빈은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거울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cf. 「기독교 강요」 III, xxii, 1. 주권적 특징을 가진 은혜 선택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선택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죽을 인생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천사들의 머리”가 되었던 것이다. 칼빈은 거울의 개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와같은 선택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의미는 칼 바르트의 견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의 아들과 분리하여 생각한다면 심지어 아버지 안에서도 그 증표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택을 명상할 때마다 들여다 보아야 할 거울이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자 뜻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목되도록 정해 놓으시므로써, 그는 자기의 지체로 인정하는 자들을 자녀로서 알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귄 가운데 있는 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¹³⁹⁾

여기서 그리스도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주체이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다. 인간은 선택될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다. 즉 아무도 스스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였으나, 인간이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을 선택하였다.¹⁴⁰⁾

칼빈은 하나님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간을 은혜받아야 할 인간으로, 그러나 스스로는 이 은혜를 받아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인간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은혜를 전달하는 중재자가 요청되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칼빈은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때문에 그는 “우리의 선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드려지고, 그의 은총에 의하여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생명의 샘이 구원의 닻이요, 천국의 후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¹⁾

139) *Inst.*, III, xxiv, 5.

140) *Inst.*, III, xxii, 1 : 여기서 우리는 *Articles Concerning Predestination* 에서 칼빈이 한 말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때보다 앞선다.”

이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예정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선택이 확증된다. 즉, 그리스도와 사귄(communio)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된 자녀, 유기된 자녀 하는 것이 드러난다. 그리스도를 떠난 선택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곳에서 구해서는 안된다고 칼빈은 말한다.

우리는 그로 옷입으며, 그에게까지 이르러, 그가 살아 계시므로 우리도 살게하려 하신다.....다시 말하거니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로 인정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이시다.¹⁴²⁾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의미를 인간의 무자유성, 수동성을 폭로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은혜의 자유성, 선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의미를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여서는 선택될 수 없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안과 밖을 통하여 선택자와 유기자가 가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¹⁴³⁾

그러나 칼빈은 선택에 있어서 은혜의 施惠者로서의 하나님, 仲介者로서 그리스도, 受惠者로서의 인간, 이 삼자의 관계성을 중시한 것이지, 이 관계성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그에 있어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유일한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 유일성 즉 배타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서만 구원과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하늘 나라

141) *Inst.*, III, xxiv, 5.

142) *Inst.*, III, xxiv, 5.

143) *Inst.*, III, xxii, 2.

를 상속하는 보증자이시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만이 하늘 나라의 상속권을 분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⁴⁴⁾

칼빈은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구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한다(요17:6). 그러므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소홀히 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은 결코 아버지와 아들을 예정론에 있어서 분리시키지 않으며, '아버지와 아들'의 뜻(will)을 일치시키는 것이다.¹⁴⁵⁾

C.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

예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함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는 칼빈에게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반대자에 대한 반론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 선택받은 인간을 다루고, 그 선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1. 인간의 전적 타락

144) *Inst.*, III, xxiv, 5.

145) H. Buis, *Historic Protestantism and Predestination*, (Michigan : Grand Rapids, 1958), p. 101.

아담의 타락에 대해 칼빈은 어거스틴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¹⁴⁶⁾ 그는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았던 때의 그대로의 피조물은 선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피조물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타락이 결코 인간의 책임을 조금도 배제하지 않는다. 즉 인간은 죄가 있고, 그 죄의 근원은 교만과 타락과 결탁한 불성실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성과 의지는 완전히 죽지 않았으나 빛을 상실했다.¹⁴⁷⁾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본래 선으로 향하는 능력을 상실했고,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여 비참한 노예의 신세로 전락했으며, 인간의 성품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그 정신과 의지는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무엇이든지,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지성으로부터 육신에 이르기까지, 또는 이해력과 그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그 결과 지성과 의지에 손상을 입어 분별력이나 판단 능력과 수행 능력을 잃어버렸고, 의로움, 정직함,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 등을 상실하게 되었다.¹⁴⁸⁾

만사의 처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구원과 사망의 결정도 그의 권한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도록 정하셨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하는 것도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예속되었다고 말한다(롬5:12 이하 참조). 이 일은 자연에 돌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

146) *Inst.*, III, xxiii, 7. 칼빈은 아담에게는 원래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참조: *Inst.*, I, xv, 8.), 타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사람의 의지가 약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강력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147) 박건택 편역, 「칼빈의 설교학」(서울: 도서출판 나비, 1990) p. 43.

148) *Inst.*, II, i, 5.

시기 전에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셨으며,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명령하신 것임으로, 미리 아셨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장차 있을 일을 모두 예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분인 것같이, 그의 손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며 주관하는 것은 그의 권능의 일부이기 때문이다.¹⁴⁹⁾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높이시기 위해 모든 일을 정하시고 주장하신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도록 '경륜적으로 뜻을 정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9-20절에서 그 점은 명확하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일이 참으로 "창세 전에 정해진"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계13:8 참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보다 더 찬란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배경으로서의 죄가 필요하였다(롬 5:20).

존 길(J. Gill)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경륜에 따라서 아담의 타락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에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나 또는 강압적인 압제를 행함으로써 그렇게 타락하도록 하신 것은 아니다."¹⁵⁰⁾

타락한 인간은 한결같이 그 행동에 있어서 그들은 결코 강제되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로 그러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 심정의 자연적 발동에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죄로 향하는 인간의 심성은, 인간의 타락되고 부패한 본성의 특질이다.

인간은 비록 이성, 양심, 의지 등의 자연적인 은사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

149) *Inst.*, III, xxiii, 6-7.

150) 아더핑크, 「인간의 전적 타락」, 서문강역 (서울:청교도신앙사, 1988), pp. 374-378.

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된 선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2. 유효한 부르심 151)

선택된 자들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가입하게 된다. 부르심은 선택의 증거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는 로마서 8장29절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는 구절에서도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에 이미 자녀로 정하셨으나, 그들이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구원과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부르심과 선택이 연결될 때, 이 일에서 하나님이 그제 주시는 긍휼 이외의 것을 찾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충분히 보여준다. 그리고 부르시는 방법은 부르심이 은혜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조명이다.¹⁵²⁾ 우리의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여기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 바른 방법과 그른 방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선택을 바르고 합당하게 검토하는 사람들은 탐구의 방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출발점과 종점으로 삼아야 한다.¹⁵³⁾

151) *Inst.*, III, xxiv, 1-5.

152) *Inst.*, III, xxiv, 2.

153) *Inst.*, III, xxiv, 4.

구원의 전제인 선택의 증거로서 흔히 열거되는 예정, 부르심, 믿음, 칭의, 중생, 성화, 그리고 영화 등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그의 주권과 자의지에 둬으로써,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순수한 은총임을 재확인하게 된다. 이는 로마서 8장 11절에서와 9장 5-16절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이니라고 함과 같다.

그래서 부르심은 선택으로 예정된 자가 구원에 이르는 통로로서 선택의 한 증거가 되나, 반드시 선택이 선행되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칼빈도 이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는 말씀은 매우 오해를 받고 있다.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 소명으로 외적인 복음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자신에게로 부르신다. 복음을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그리고 더욱 엄격한 정죄의 기회 제시로서 사람을 부르신다. 다른 종류의 소명은 개별적인 것이며, 대개는 신자들에게만 주신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선포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머물게 하신다.¹⁵⁴⁾

그리고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진정한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며, 그가 그들의 보호자와 목자가 되시므로,

154) *Inst.*, III, xxiv, 8.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참으로 믿는 사람은 탈락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한다.¹⁵⁵⁾

3. 은총과 행위

선택은 공로에 대한 예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서 온다.¹⁵⁶⁾ 바울이, 우리가 “창세 전에”(엡1:4) 그리스도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그의 선택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눈을 돌려 생명의 교제를 받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의 몸의 지체로 선택하셨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바울은 “창세 전에” 선택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가치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한다. 더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선택의 원인을 예지라고 생각하는 과오를 반박한다. 더욱 고차원적인 원인을 묻는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으며, 이 일은 “그 기쁘신 뜻대로”되는 것 이라고 대답한다(엡1:5 상).

그러므로 창세 전의 선택은 공로의 예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선택하신 것은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지 거룩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요15:16)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전반적으로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칼빈의 말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5) *Inst.*, III, xxiv, 7.

156) *Inst.*, III, xxii, 1-6.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으려는 듯이 선택을 용인하면서도, 누군가 정죄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무지하고 유치한 것이다. 버림과 대조되지 않으면 선택은 성립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사람을 따로 구별하신다. 선택만이 소수에게 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또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정죄하신다.¹⁵⁷⁾

로마서 9-11장의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행위를 근거로 삼는 주장을 반박한다.¹⁵⁸⁾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롬9:11-13 ; 창25:23 참조).

사실상 두 형제 사이의 구별은 그들이 나기 전에 확증된 것이므로, 그것이 행위에 의존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의존된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선택된 목적은 지상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감춰져 있었던 야곱의 영적 선택을 지상적인 표징으로 표현하려고 하셨다.¹⁵⁹⁾

D. 예정의 대상

칼빈은 예정의 대상에 대해 말할 때, 먼저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선택을 먼저 언급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의 선택과 유기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선택으로서 개인들

157) *Inst.*, III, xxiii, 2.

158) *Inst.*, III, xxii, 5.

159) *Inst.*, III, xxii, 6.

의 선택을 정의한다.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1. 이스라엘의 선택

칼빈은 예정의 대상에 대해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각 개인에 관련해서 예정을 정의하며,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선택을 말한다.¹⁶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개개인에게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를 한 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각 민족의 장래도 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밝히셨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신32:8,9). 그 선별하신 것은 다른 백성들이 제외되고, 마른 나무와도 같은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서 한 민족이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밝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다만 모세가 후세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우수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가르칠 따름이다. 그들이 구원을 얻은 원인에 대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열조를 사랑하셨고, “그 후손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신4:37).

다른 장에서는 더욱 명백하게 말한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신7:7-8).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입은 이유를 신명기 10장 14-15절을 통해 다시 한 번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라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확실히 말한다.

160) *Inst.*, III, xxi, 5.

그리고 칼빈은 예정의 또 다른 이유를 거저 주신 '언약의 원칙'에서 찾고 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가 선택의 결과임을 말한 후에,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그럽게 행한 것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시105:42 참조).¹⁶¹⁾

2.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의 선택과 유기

칼빈은 이제 선택의 둘째 단계에서 제한적인 성질을 첨가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더욱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얼마를 제거하셨으나, 그의 자손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그들을 품으심으로써 지키셨음을 보여 주셨다. 이스라엘과 이삭은 처음에 동등한 자격을 받았는데, 이는 할례라고 하는 상징에 의하여 영적인 계약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스마엘과 그 동류들이 선택으로부터 끊어졌음은 그들의 악과 죄책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약을 충실히 지킨다고 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성실하게 그것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단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민족의 선택에 있어서, 이미 자신의 순수한 관대성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웠기 때문에, 은혜의 평등한 분배란 강요될 수 없다. 이 불평등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진실로 그것이 값없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거룩한 아버지에게서 나서 똑같이 계약의 후계자이며, 거룩한 뿌리의 가지였는데도 그 지위를 이어 받게 되었기에, 야곱의 자손만이 그들이 감당할 의무가 막중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161) *Inst.*, III, xxi, 5.

생각하신다.¹⁶²⁾

3. 실제적인 선택으로서 개인들의 선택

칼빈은 지금까지도 공동체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였지만, 하나님의 주요 관심은 본질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내면적인 은혜를 받은 '영적인 후손들'인 개인들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계획에 근거하여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다른 자들은 버리신다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개개인의 경우에 개입되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단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확실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들의 값없는 선택은 절반 밖에 해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계약을 맺으시고 어느 한 백성을 자기에게 부르실 때, 그들 가운데 일부에게 특수한 선택 방법이 사용되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간에게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신채로 지나치시는 일이 없는 선택의 예증을 우리에게 보여 주심으로,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거대한 수효의 대중이 떨어져 나가고 사라져서, 극소수만이 남게 되는 일을 종종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되풀이하여 자신에게로 모으는 것은, 자신이 세우신 계약을 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이 계약이 다수자에게 의하여 파기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소수자 가운데 이것을 한정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만을 선택하여 베푸시는 더 큰 은혜가 전적 상징인 것이다. 이 계획이 선택된 자에 관한 한 자유롭

162) *Inst.*, III, xxi, 6.

게 베풀어진 그의 자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지금 선택된 자들 간에는 소명을 선택의 증거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성취되는 영광에 이를 때까지 다른 하나의 징표를 칭의로 생각한다.¹⁶³⁾

결론적으로 칼빈은, 선택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배제하며,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부터만 나오는, 무조건적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의 선물인 것을 재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어떤 이성도 지극히 무가치한 것이다.

E. 이중 예정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을 선택과 유기로 나눈다.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며, 유기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멸망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인데, 선택과 유기를 포함하는 칼빈의 예정론을 소위 이중 예정 (*double predestination*)이라고 한다.

물론 이중 예정은 칼빈이 처음 발견한 교리는 아니다. 이미 어거스틴은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인 선택과 공의 표현인 하나님의 유기를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이중 예정은 칼빈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고, 조직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선택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선택(Election)

163) *Inst.*, III, xxi, 7.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교리에 대한 중요한 특징들을 「기독교 강요」 내에 포함된 에베소서 1장3-6절의 주해에서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칼빈은 여기서 성경이 그들을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자들을 상대로 하는 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창세 전에” 선택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선택의 조건이 결코 인간의 공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또한 그 선택의 목적이, 선택한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말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신의 의지로만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함으로,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상상하는 선택의 수단을 일체 배제한다.¹⁶⁴⁾

이와같이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사람들을 택하였고,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은혜를 그들이 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해 각각 간직해 두신 것이라는 이 한 가지 근원에서 흘러 나오기 때문인 것이다.¹⁶⁵⁾

a. 선택의 성경적 개념

성경은 선택을 한 가지 이상의 의미로 언급한다. 먼저 특별한 특권들과 직무들을 위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선택(신4:37; 7:6-8; 10:15; 호13:5)과 어떤 직분에 대한, 혹은 어떤 직무 수행을 위한 개인들의 선택, 예컨대 모세(출3장), 제사장들(신18:5), 왕들(삼상10:24; 시78:70), 선지자들(렘1:5), 사도들(요6:70; 행9:15)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개인의 선택(마22:14; 롬11:5; 고전1:27-28; 엡1:4; 살전1:4; 벰전1:2; 벰후1:10) 이다.

164) 칼빈은 때때로 선택이라는 말을 예정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Inst.*, III, xxi의 제목을 주의할 것.

165) *Inst.*, III, xxii, 2.

이 중에 마지막 부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예정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는 선택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뻐하심 속에서 아무런 예견된 공로가 없음으로, 일정 수의 인간들을 영원한 구원과 특별 은혜의 수령자들이 되도록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동이라고 정의된다.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¹⁶⁶⁾

b. 선택의 특징들

칼빈은 선택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선택은 또한 하나님의 작정적 사역이며, 그것은 개개인에 관련된 사역임을 강조했다. 선택의 특징들은 일반적인 작정들의 특징들과 동일하다. 여기서는 그 특징들을 열거하고, 그 해당부분에 관해서 칼빈의 주석을 통해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한다.

(1) 선택의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그의 신적인 기뻐하심의 표현이다.

언약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를 받도록 예정하심으로 해서 사람들 간에도 구별이 있게 되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선택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긍휼일 뿐이며, 이 선택은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포함하되, 그들의 행위와는 무관하다.¹⁶⁷⁾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에도 이끌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자신의 결정만이 본질적인 선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도 그 예정이 영원한 선택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결국 구원은 순수하게 은혜로

166) 루이스 벌코프, op. cit., p. 316.

167) 존 칼빈, 「칼빈성경주석」, 신복운, 이종성, 한철하 공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롬9:11, pp. 294-296.

말미암아 얻어졌다(168)

그리고 인간의 공로없이 값없이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동등하게 필연적으로 베풀어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으시다. 오히려 그는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가 원하는 자들을 간과하신다.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 지혜롭게 그리고 순서를 따라 적절하게 배열되었다. 실제로 하나님만이 그 예정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그 예정을 은밀히 간직해 두시려고 하시는 동안, 그 뜻이 사람에게에는 숨겨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 예정인 인간에게 알려져야 할 때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을 양자로 삼으시고자 하는 결정은 지금까지 감추어져 왔다. 그것이 계시될 때까지 인간에게 유보되었던 것 뿐이다.(169)

(2) 선택의 작정은 불변적이며, 따라서 선택자의 구원을 확실하게 한다.(롬 8:29-30; 11:29; 딤후2:19)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즉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는 구원 사역에 의하여 선택의 작정을 실현하신다. 선택한 개인들이 끝까지 믿고 견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는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과 성령의 주관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러한 결과를 보증하신다.

칼빈은 그의 주석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확고부동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육신의 크나큰 허약성에도 불구하고 선택자들이 위협에 처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170)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에 자비를 베풀어 자기를 위하

168) Ibid., 앱1:11, p. 268.

169) Ibid., 앱1:9, pp. 266-267.

170) Ibid., 딤후2:19, pp. 574-576.

여, 선택해 주셨단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확고하고, 불변하다는 것이다.

(3) 선택의 작정은 영원하며, 즉 영원으로부터 있다.(롬8:29-30, 엡1:4-5)

이 신적인 선택은 그것이 이생에서의 하나님의 일시적인 선택과는 동일시되어서는 안되며, 영원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칼빈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 공로없이 무상(無償)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는 에베소서 1장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인용함으로써, 선택이 값없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으로서는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선택의 은혜와 거룩한 생활은 분리할 수 없다고 했다.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에서 구원에 대한 원인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력인(動力因, the efficient cause)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질료인(質料因, the material cause)은 그리스도이며, 목적인(目的因, the final cause)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 첫째로 동력인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양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전체적인 문맥에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예정하사"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 말의 순서에 좀 더 주의해야 한다. 그때는 우리가 아직 존재하기 전이다. 따라서 우리 편에는 아무런 공덕도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우리의 인간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밖에서 원인을 찾으시지 않았고, 다만 그의 뜻으로써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¹⁷¹⁾

171) Ibid., 엡1:4-5, pp. 506-508.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자를 양자로 삼을 때, 그 자신 외에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미리 아시는 것이 없으며, 그가 선택하고자 계획하신 자들을 단지 선발하셨기 때문이다. ‘미리 정하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동사가 의미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양자로 삼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도록 결정하셨다는 것일 뿐이다.¹⁷²⁾

(4) 선택의 작정은 무조건적이다.(롬9:11; 행13:48; 딤후1:9; 뱀전1:2)

선택은 신앙과 선행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뻐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예견되는 이것들마저도 그러한 기초를 제공할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이어서 성령의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알릴 수 없다. 우리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구별되었고,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되었다. 바로 이것이 선택의 기초요, 제일의 원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가 구원을 위하여 선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는 것이다.

칼빈은 베드로전서 1장을 예로 들면서, 베드로가 그들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지칭한 것은, 선택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는 하나님이 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지는 인간 편에서의 모든 공로를 일체 배제한다.¹⁷³⁾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 전체에 미친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서 주실 정도로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들만을 ‘알았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172) Ibid., 롬8:29-30, pp. 266-270.

173) Ibid., 뱀전1:2, pp. 345-347.

특별한 은혜를 함입어 선택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가치를 보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으며, 하나님 자신의 은총으로 선택하였기에, 하나님에 대한 책임 회피로 마땅히 중한 벌을 받을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⁷⁴⁾

(5) 선택의 작정은 불가항력적이다.(시110:3; 빌2:13)

이것은 인간이 어느 정도 그것의 실행을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의 반대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선한 의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유 선택에 따라 정하신 모든 것들의 완성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¹⁷⁵⁾

(6) 선택의 작정은 불의한 것으로 비난될 수 없다.(마20:14-15; 롬9:14-15)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이들은 그대로 지나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하는 비난을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에 대해 하나님이 설명하시도록 요청할 만한 아무런 권리도 없을 뿐더러, 그가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가 완전히 의로우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칼빈은 로마서 9장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쳐 나갈 수 없는 미궁(迷宮)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왜 유기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오직 그의 작정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다. 구원의 유일한 참된 원인은 모세가 사용한 두 마디 단어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전체의 뜻은 하나님의 긍휼은 값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얽매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베풀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¹⁷⁶⁾

174) Ibid., 암3:2, pp. 200-202.

175) Ibid., 빌2:13, pp. 504-508.

176) Ibid., 롬9:14-15, pp. 298-300.

c. 선택의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목적은 이중적이다. 하나는 칼빈이 선택의 최종적 원인, 곧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지칭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킨다. 다른 하나는 그가 선택의 직접적 목적이라고 지칭한 것으로서 우리의 성화를 가르킨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선택의 직접적인 목적인 성도의 성화와 이 목적에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선택의 직접적인 목적은 선택된 자들의 성화, 곧 그들의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엡1:4)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이 성화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에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자 선택은 그가 정하신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해 준다.

이 구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살펴보면, 그는 여기서 궁극적 목적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직접적인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이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고 해서 모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다음과 같다.

건축의 목적은 집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안에서 편히 사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이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곧바로 또 다른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모순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의 목적이며 우리의 성화는 이차적인 것이다.¹⁷⁷⁾

로마서 8장29-30절은 이러한 수단의 기본적 구조를 제시해 주는데, 바로

177) Ibid., 엡1:4, pp. 260-263.

이러한 수단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선택, 곧 소명과 칭의, 영화를 수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 중에 우리는 소명을 선택의 증거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선택이 성취되므로써 그들이 영화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칭의를 또 다른 선택의 징표라고 생각한다.¹⁷⁸⁾ 이것은 또한 칼빈의 신학 전체에 있어서 선택 교리의 결정적 의미를 제시해 준다.

칼빈은 그가 집필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한 논문」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인간 구원의 최고 목적이자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오직 그 자신의 영광을 맨 먼저 그리고 최상의 것으로 정하셨으며,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거대한 현장으로서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이다.”¹⁷⁹⁾

이와같이 영원한 선택의 목적은 이중적이다. 가장 가까운 목적은 선택자의 성화를 통한 구원이다. 인간이 구원으로 선택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다(롬11:7-11; 살후2:13).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2. 유기(reprobation)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준들은 유기도 언급한다. 칼빈은 선택의 기원을 하나님의 무상의 의지에서 추적해 냄으로써, 유기도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단순한 의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는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¹⁸⁰⁾ 어거스틴은 선택론과 마찬가지로 유기론을 가르쳤지만, 이 ‘난

178) *Inst.*, III, xxi, 7.

179) J. Calvin, *Calvin's Calvinism*, Rf. Free Publishing Association, 1950. p. 85.

180) J. 머레이,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op. cit., p. 90

나는 택함을 받고, 하나는 택함을 거절당했다는 점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예정의 근거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다.¹⁸³⁾

그리고 칼빈은 성경적 근거에 의해 악행에 대한 예지를 작정의 근거로 세우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것들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작정하신 사실에 의해서만 미래를 예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지에 대해 논쟁을 제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모든 일이 오직 그의 결정과 명령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명백하다.”¹⁸⁴⁾

결론적으로, 유기의 원인에 대한 칼빈의 대답은 로마서 9장에 대한 그의 분석으로부터 나온다. 즉 유기된 자도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파멸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 이것에서 그는 유기 작정의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b. 유기의 목적

앞에서도 칼빈의 성경 주석을 통해 알수 있드시 유기의 목적은, 선택의 목적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경은 말씀하시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씩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

183) F. H 클로스터, 「칼빈의 예정론」, op. cit., pp. 94-98 : “하나님이 어떤 이는 택하시고, 어떤 이는 간과하심으로써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좋아하실 때, 그 차이는 인간의 존엄이나 혹은 비참함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기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유기의 근거(ground)라고 할 수 없다.” 「영원한 예정」, pp. 120-121.

184) *Inst.*, III, xxiii, 6.

라”(잠16:4)고 하였으며,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바로 세운 것은 그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함이라”(출9:16)고 하였다.

칼빈의 판단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공의를 포함한다. 그는 이것을 타락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죄의 근거는 죄, 오직 죄 뿐이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것, 오직 우리의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는, 선택의 결과인 구원에는 결코 적용이 될 수 없는 근거를 인간 자신들에게서 언제나 찾는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의 이름의 영광이 합당하게 나타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 분명하다.¹⁸⁵⁾ 칼빈은 잠언 16장 4절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라! 만사의 처분권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구원이나 죽음이나 의 결정도 그의 능력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계획의 뜻에 따라 사람 가운데 어떤 이는 모태로부터 이미 명백한 죽음에 내맡기시고, 그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정하신 것이다.¹⁸⁶⁾

하나님께서서는 선택된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써 영원한 계획으로 그들에게 예정하신 구원을 완성하는 것과 같이,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계획도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행하신다.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공정한 처리를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선포가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의 악의와 사악한 마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그 패악한 상태에 넘겨졌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

185) *Inst.*, III, xxiii, 8.

186) *Inst.*, III, xxiii, 6.

IV. 칼 바르트와 존 칼빈의 주요 논점에서의 예정론 비교

이상과 같이 바르트와 칼빈의 예정론을 서로의 다른 주장을 통해 여러 각도로 알아 보았다. 유사한 점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른 견해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양자의 견해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A. 예정론의 인식론적 근거

우리는 여기서 바르트의 예정론의 인식론적인 근거를 말하기 이전에 그의 계시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바르트의 신학은 “하나님 말씀의 신학”과 그것의 필연적인 추론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강조한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제한된 인간, 창조물과 피조물의 간격은 계시를 통해서도 만날 수 없는 것으로, 또한 기록된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순된 언어라고 생각한다. 그의 계시론은 “성경 그 자체가 계시가 아니라 단지 계시의 증거(a witness of revelation)가 전부라고 확신하며,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의 책”으로 주장한다.¹⁸⁷⁾ 즉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지각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으며, 오직

187) A. D. 폴만,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이창우역 (서울:성광문화사, 1981), p. 21.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거듭 거듭 강조한다. 그의 입장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근대의 주관적 계시 개념의 토대를 단번에 제거해 버리며, 하나님은 숨겨지신 하나님이시며, 영적으로 소경된 인간은 결코 그 분을 발견할 수 없다. 인간을 찾으시고 또 그리 하심으로써 인간을 위기에 몰아 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에 의하면, 계시는 성경에서조차도 구체적 역사성을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에게 지식의 전달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중심적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사건으로 오는 것임을 강조한다.¹⁸⁸⁾

바르트는 인식론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두었다. 그는 계시를 칼빈과는 달리 철저히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전에 투사되어 있는데, 이런 사상은 플라톤적 철학의 영향을 받은 관념론적 사고인 것이다.

그는 인간 예수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에 참여한다고 보았고, 예수를 ‘처음부터 희생된 양’으로 보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에 있어서 인간이 되신 것은 역사상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을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태초부터의 ‘원 결단’은 비성경적인 견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바르트는 은폐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시라고 하였고, 성경의 계시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시라고 주장하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균형있게 보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만을 강조하게 되

188) 루이스 벌코프, op. cit., pp. 132-133.

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하나님의 부정은 그 그림자에 불과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의 선택론은 처음부터 인간의 유기를 부정하고, 만인 구원론(Apokatastasis)¹⁸⁹⁾으로 향하게 되었다.

반면에 칼빈은, 예정론의 인식론적인 근거를 오직 성경에 두었다. 그는 그의 모든 신학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예정 교리 또한 당연히 성경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는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주에 대하여 보아야 할 모든 것을 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을 비추어 주는 빛은 주의 말씀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특별히 예정론에 대해서는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는 것 이외의 것을 알고 하는 것은, 길 없는 광야를 걸어가려는 것이거나 또는 어두운 데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 못지않게 어리석다”고 말했다.¹⁹⁰⁾ 그리고 이중 예정에 있어,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한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자기도 침묵하였다.

이와같이 그의 예정론은 철저히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았던 것이다. 그는 성경에서 이 교리를 이끌어 냈으며, 또한 그것이 자기의 해석을 판단해 주는 표준이 되기를 원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은,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이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영감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된 뜻으로서 칼빈신학의 유일한 근거인 것이다.

189) Apokatastasis란 용어는 헬라어 ἀποκατάστασις에서 온 용어로서, 궁극적으로 만물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피조물 즉, 천사, 인간, 악마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오리겐을 비롯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상을 어거스틴은 실랄하게 비평했다.

190) *Inst.*, III, xxi, 2.

B. 선택의 주체와 객체

바르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된 하나님(*Deus revelatus*)이라고 하며,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그리스도 일원론은 그의 신학 전체를 극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수렴시켰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론적으로만 파악하여,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따라서 참 하나님으로서 그는 선택의 주체이며, 참 인간으로서 그는 선택의 객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또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된 인간”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누가복음9장 35절, 23장 25절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일반 사람들의 선택과 다르다는 점에서는 바르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선택이고, 그의 선택안에 모든 사람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옳바른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예수께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로서, 즉 중보자로서 일반인과는 다른 위치에서 선택받은 것이지, 그의 선택이 모든 인간 전부의 선택을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바르트는 예정론에서 선택과 화해론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선택을 혼동하고 있다. 바르트는 에베소서1장 4절에 있는 “그 안에서(*ἐν αὐτῷ*)”를 “그와 함께, 그와의 사귄 가운데” 또는 “그를 통하여”를 뜻할 뿐만 아니라 더욱 나아가 “그의 인격 안에, 그의 의지 안에, 그 자신의 신적 선택 안에, 하나님의 근본적 결단 안에”를 뜻한다고 해석한다.¹⁹¹⁾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선택된 자들과 구별되면서 이와 동시에 그들과 결합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인간인 동시에 그 자신의 인성 가운데 그들 모두를 선택하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그 안에서”를 “그의

191) C.D., II/2, p. 125.

선택 안에서, 그의 선택과 함께”로 해석하여 예수의 선택 안에 우리 모두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즉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도록, 모든 사람의 선택은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바르트는 선택의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예정론을 그리스도 일원론적 성격으로 물고 갔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바르트는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칼빈은 삼위일체론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선택에 참여한 선택의 주체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¹⁹²⁾

칼빈은 선택의 주체를 삼위일체 이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다. 먼저 예정의 동기와 원인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다는 것과 예정의 근거 및 수단이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효과 및 그 종말론적인 성취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말한다. 이와 같이 칼빈은 예정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정을 종말론적인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는 출발점(Starting Point)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칼빈은 예정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결정’(decretum absolutum)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바르트는 칼빈이 말한 ‘절대적 결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것은 칼빈의 예정론의 구원론적인 성격을 간과한 데서 오는 잘못이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칼빈은 오히려 ‘절대적 결정’을 말함으로 성부와 성자 사이를 완전히 일치시키고 있다.¹⁹³⁾

192) *Inst.*, III, x xii, 7.

선택에 있어서도 주체와 객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인간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의 직분에 위치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해 칼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택에 참여한 선택의 창시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중보의 직분이 주된 직분이라고 한다. 바르트가 잘못 이해한 “그 안에서 (*ἐν αὐτῷ*)”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예수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 안에서”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그의 자비의 측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공의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그 안에서” 비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에 대해 W. Niesel은 칼빈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이미 사랑하셨으나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해서는 그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제사 행위 안에서’ 그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낱 유약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중보자의 화목제에서 생생한 현실로 나타난다.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 살아 있으며, 생기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받아 드린다.¹⁹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란 예수 그리스도 라는 ‘중보자 안에서’의 선택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선택에 있어서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객체는 인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요, 중보자되심이 주된 직분이다.

193) *Inst.*, III, xxiv, 5.

194) 빌렘 니이젤, 「칼빈의 신학사상」, 기독교 학술연구원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7), p. 119.

C. 이중 예정

바르트의 예정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을, 아니 인간 자신이 스스로 택한 이 저주와 버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감당할 것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즉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저주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되었던 것이다.

바르트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업적에 여하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응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새로운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려 있다. 이런 사상에 기초한 바르트의 예정론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이중 예정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르트에 있어서 이중 예정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구원의 선택을 결정하셨고, 하나님 자신에게는 이 인간의 죽음과 저주를 결정하심을 말한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에 대한 위협이나 응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뜻한다. 그것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의 총화요, 복음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뜻한다. 바르트가 그의 예정론을 선택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은 심판하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선택하는 분”이시다. 만일 사람의 공적 여하에 따라 판단하는 하나님이라면 아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을 버리는데 있지 않고 선택하는데 있다.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버리고자 하는 의지 위에 있다. 지금 하나님의 버림 받은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선택의 대상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선택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규정이다.¹⁹⁵⁾

칼빈은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며, 유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멸망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인데, 선택과 유기를 포함하는 칼빈의 예정론을 이중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이중 예정은 칼빈이 처음 발견한 교리는 아니다. 이미 어거스틴은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인 선택과 공의의 표현인 하나님의 유기를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이중 예정은 칼빈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고 조직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버림과 대조되지 않으면 선택은 성립될 수 없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신다고 말하면서, 선택은 소수에게만이 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또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신다. 그리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예정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은밀한 계획과 관계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가해한 계획속에 감추어진 것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칼빈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예정론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모두 무익하고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또한 예정론의 문제를 공식화하는 것을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만약 하나님의 영원하

195) 김균진, *op. cit.*, pp. 344-345.

신 계획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는 두려운 공포로 휩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도 전에 우리 자신의 이성의 덫에 걸려 무지의 늪을 헤메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교리에 접근하게 될 때 이 교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196)

D. 만인 구원론과 제한 구원론

하나님은 자신에게는 심판과 죽음을, 인간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 예정은 실천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선택을 받았다. 즉 심판과 저주 대신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니다.

바르트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요, 약속이며,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신앙이 없어도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지, 현실적으로 선택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선택과 구원은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인간에게 주기로 생각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물로서 선포된다. 인간이 이 가능성을 받아 드릴 때 선택은 현실화되지만, 받아 드리지 않을 때 그것은 여전히 가능성 내지는 복음의 선물로 머물게 되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전통적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적 결정’을 말함으로 선택은 은폐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에 은폐되어 있는 ‘절대 결정’이 있는 이상 누가 선택이 되었는지, 누가 버림을 받

196) *Inst.*, III, xxiv, 4.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칼빈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았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전통적 예정론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기 보다는 불안과 공포를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공포의 '절대적 결정'에 대신하여 과연 누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선택에 대한 객관적 확실성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결국 만인 구원론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바르트의 선택론이 바로 그 예가 된다.

바르트는 선택에 대한 객관적 확실성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모든 것을 수렴시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는 저주와 죽음을, 인간에게는 축복과 생명을 예정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서 모든 인간은 선택되었다는 선택에 대한 객관적 확실성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태초에 영원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서 인간의 선택을 결정한 하나님의 '원 결단'이다.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불신앙에 의해서 취소될 수가 있는가? 도리어 인간의 불신앙이 그 '원 결단'¹⁹⁷⁾ 안에서 존재론적 불가능성이다.

바르트는 이와같이 그의 선택론에 있어서 만인 구원론적인 구조와 내용을 다 밝혀 놓고서, 정작 마지막에 와서는 만인 구원론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그의 선택론이 만인 구원론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인간의 신앙을 내세워 새삼스럽게 유기의 가능성을 비치므로 바르트는 그의 선택론이 만인 구원론에 빠지는 것을 모면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때에는 다시 하나님의 결정과 인간의 반응의 관계 사이에 긴장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가 전통적 예정론의 '절대적 결정'에 그토록 반대하여 확보해 놓은 구원의 객관적 확

197) '원 결단'이란 하나님이 그의 시간 이전, 영원 안에서 인간에 관해서 자기 자신과 맺은 영원한 계약이라고 바르트는 말한다. 이 계약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실성이 다시 흐려진다. 바로 그 점에서 그는, 그의 선택론의 논리적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바르트는 여태까지 그의 주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미 심판을 제거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 결단'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라고 말했다. 아직 불신앙에 있는 버림받은 자들이란 아직 그들도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한바 있다. Berkouwer는 바르트의 선택론이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배가 지금 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 익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¹⁹⁸⁾

바르트가 만인 구원론에서 빠져나오기에는 너무 깊이 빠져있다. 하나님이 신앙없는 자에게는 알려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도 신앙이 없는 자에게까지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선택이 신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선택된 자는 신앙에 의해서만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신앙없이 확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트가 불신앙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구원의 확실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신앙이 없거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만인 구원론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그 자신은 이것을 부인하지만 그의 변명은 처음부터 일관되는 그의 만인 구원론적인 그의 논리적 구조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모든 택자가 그리고 오직 택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는 말하기를, “선택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수중에 놓였다. 그러나 그 후손

198) Berkouwer, G.C., *The Triumph of grace in the Theology of Karl 바르트* (Michigan: Eerdmans, co. 1956) p. 265.

들 중 많은 사람들이 썩은 지체로 인정되어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선택이 효과적이고 참으로 지속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머리되는 분에게로 올라가야 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머리 안에서 그 자신의 택자들을 모두 모으시며, 풀 수 없는 끈으로 그들을 자신에게 결합시키셨다.”고 했다.¹⁹⁹⁾

“그러므로 전 세계가 그 창조주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제한된 소수만을, 저주와 진노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멸망의 운명을 면하게 하신다. 그러나 세상 자체는 그 예정된 대로 자멸하게 버려 두신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이시지만 아버지와 함께 선택권을 주장하신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이라’(요13:18)고 하신다. 어디서 택하였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구절에서 ‘세상에서’라고 라고 대답하신다(요15:19). 그러나 제자들을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에서 그는 이 세상을 제외시키신다(요17:9).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인류 가운데 특별한 일부분 곧 그의 공덕의 성질에 의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결정에 의해서 구별되는 일부의 사람들을 암시하시는 것이다.”²⁰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구원의 약속을 선택된 자에게 특별히 주신다는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더욱 명백하게 보여 주신다. 즉 그들만이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인류 전체가 차별없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신다(사 8:16). 그러므로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그 개개인을 위해서만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구원의 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때도 실제로 똑같이 유익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이 가르침을 그릇되게 저속화하는 것임이 분명하다.²⁰¹⁾

199) *Inst.*, III. xxi , 7.

200) *Inst.*, III. xxii , 7.

201) *Inst.*, III, xxii , 10.

성경의 증거와 칼빈의 주장은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아 마땅한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일부는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일부는 멸망으로 유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안에는 없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실지를 미리 아시고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만인 가운데 일부는 구원받지만, 나머지는 분명히 멸망으로 유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만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칼빈은 선택의 증거를 소명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그들에게 선택된 자녀라는 것을 알리신다. 소명을 받은 자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선택됨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구원의 약속을 알게하므로, 구원의 확실성을 실제로 갖게 한다.

우리의 행위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도리어 많은 죄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그 소행을 봄으로 확신은 커녕 두려움과 당황을 느낄 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 즉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확실성의 근거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서 구원의 확실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무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값없이 그의 자녀로 받아 드렸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요일5:10),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요일5:11-12)”

우리는 이와같이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절대적 결정’은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도리어 확신과 기쁨이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된 것이 자신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구원의 확실성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두 신학자의 예정론에 대한 관점들을 살펴 보았다. 바르트는 신론, 삼위일체론, 계시론, 기독교론 등 전반적인 신학 사상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 특별히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완전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시 자체도 아니고, 다만 완전하고 유일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설명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학은 사변이며, 인간의 말 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에 기초하여 교회사의 수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놓은, 개혁주의적 예정론에 도전한 바르트의 선택론은, 몇가지 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나, 그의 잘못된 신학이 예정론 전반을 오도하였다.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외에서 찾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예정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모든 바른 신학의 요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바르트에게는 예정론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예정론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범위가 아니므로 논의를 약하기로 한다.

V. 결 론

실제로 기독교 초기 때부터 발생했던 문제들을, 지금도 오늘날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 준다. 지금까지 본 논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온, “예정 교리”에 대한 주제 또한 당시에 반증을 충분히 받고, 수 많은 논쟁을 통해서 확실한 것을 세워 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의식 속에 지금도 살아 있다. 세월은 변했어도 모든 사람들이 이 의식 속에 빠져 있다. 당시에 부정했던 내용들이 지금도 전과 후가 없이 받아 드러지고 있으며, 부정되어 지고 있다. 우리의 의지 자체가 그런 성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찾아서 방법과 대책을 간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데로 그대로 가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의 증거가 가장 객관적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 또한 성경에 대한 근원적 흐름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바르트는 예정의 모든 문제를 철저히 기독교론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려고 한다. 결국 바르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공의와 자비의 속성을 균형있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의 측면만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적으로 편향하여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오해하고 수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는 잘못된 신앙과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편견으로써 전통적 신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이러한 바탕에서 시작된 그의 예정론은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

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 나온다는 것을, 결코 충분히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는 선택의 과정을 회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의 교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모든 면에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공적과 성령의 사역을 높이 인정하게 하며, 오직 주의 자비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준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주에 대하여 보아야 할 모든 것을 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을 비취주는 빛은 주의 말씀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마음과 귀를 열고 듣는 것을 우리는 허락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지혜를 이해하기 보다는 경외하기를 원하며, 경외함으로써 찬탄하시기를 원한다고 했다.

비록 바르트의 내용이 인간의 이성을 설득하고, 모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정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진리가 될 수 없다. 또 그 내용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한 내용도 엄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위를 갖고 있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된다. 선택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계획은 인간의 어떤 것과도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선택된 모든 자는 믿음을 통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 참고 자료(Bibliography)

<1차자료>

(Barth)

Barth, Karl. *Church Dogmatics*. Edinburgh : T&T. Clark, 1957.

_____, *The Epistle to the Romans*. London : Oxford Univ. Press, 1972.

D. L. 물러. 「칼 바르트의 신학 사상」 이형기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6.

김균진. 「헤겔과 바르트」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8.

(Calvin)

J. Calvin, *Calvin's Calvinism*, Rf. Free Publishing Association, 1950.

_____, *Christliche Unterweisung Der Genfer Katechismus Von 1537*, (Furch Vorlag, 1963)

_____, *The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7.

_____, *Commentaries*, trans, Joseph Haroutunia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J. 칼빈. 「기독교 강요 상, 중, 하」 한철하의 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_____. 「칼빈의 성경주석」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서울: 성서교제간행사, 1992.

F. H. 클로스터. 「칼빈의 예정론」 신윤복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94.

<2차자료>

(Barth)

Berkouwer, G.C., *The Triumph of grace in the Theology of Karl 바르트*,
Michigan: Erdmans, co. 1956

Heinz Zahrnt, *The Question of God*, tr. R. A. Wilson. New York : A
Helen and Kurt Wolff Book Harcourt Brace Joranovich, 1969.

Van Til, Cornelius. *The Case for Calvinism*.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63.

A.D. 폴만.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이창우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까잘리 조르즈. 「칼바르트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K. 바르트. 「바르트 교의학 개론」 전경연역. 서울: 한신대 출판부, 1992.

오토 베버. 「칼 바르트의 교회교의학」 김광식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7.

김광식. 「현대의 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김영환.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8.

윤성범. 「칼 바르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이종성. 「신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백철현. 「칼 바르트의 선택론 연구」 한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Calvin)

Augustine, *A Trentise on the Predestination of the saints*, Michigan:
Eerdmans, 1956.

Berkhof, L.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 Co., 1941.

- Harkness, G. E.,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Y.: Abingdon 1958.
- Hodge, Charle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8.
-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0.
- D.M. Mckim, "John Calvin: A Theologian for an Age of limits," in *Readings Calvin's Theology*.
- Wendel, Francois. *Calvin*, Trans by Philip Mairet. New York : Harper and Row Publishers, 1950.
- 아더핑크. 「인간의 전적 타락」 서문강역. 서울: 청교도신앙사, 1988.
- A. 카이퍼. 「칼빈주의」 박영남역. 서울: 세종문화사, 1971.
- A. E 맥그래스저. 「종교개혁 사상입문」 박종숙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A.스코트. 「개신교 신학 사상사」 김괘상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 B. 위필드. 「구원의 계획」 박종칠역. 서울: 새시대문화사, 1972.
- 헨리 미터. 「칼빈주의 근본원리」 신복윤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J. 머레이.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영화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6.
- 폴 헬름. 「칼빈과 칼빈주의자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로레인 비트너저. 「칼빈주의 예정론」 김정덕역. 서울: 세종문화사, 1997.
- 루이스 벌콕저. 「기독교 신학개론」 신윤복역. 서울: 은선문화사, 1975.
- 루이스 벌콕저. 「벌코프의 조직신학(상),(하)」 권수경외. 서울: 크리스찬 다 이체스트, 1991.
- S. 키스티메이크. 「칼빈주의」 김정훈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 C. 반 털. 「칼 바르트의 기독교론 비판」 박아론 감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

회, 1984.

- W. 니젤. 「칼빈의 신학 사상」 서울: 기독교 학술연구원역, 1997
- 강정진. 「칼빈의 예정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김경운.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신교출판사, 1971.
-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 박건택 편역. 「칼빈의 설교학」 서울: 도서출판 나비, 1990.
- 박아론. 「현대 신학 연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 박해경. 「조직신학 요해」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4.
- 신복운.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7.
- 이형기. 「존 칼빈과 칼 바르트에 있어서 예정론 비교」 한철하박사 회갑 기념논문집, 1984.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 사상」 서울: 신교 출판사, 1965.
- 강종구. 「Predestination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명용. “예정론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목회와 신학」 95년 6월호.
- 김종화. 「칼빈주의와 예정론에 대한 연구」 합동신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정낙연. 「칼빈의 입장에서 본 칼 바르트의 선택론」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유종호. 「칼 바르트와 존 칼빈의 예정론에 있어서의 신관의 비교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1995.
- 유해무.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예정론 소고」 고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윤성목. 「칼빈과 도르트신조의 예정론 비교」 합동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